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 석사학위 청구논문

한국 유학 베트남 이공계 대학원생의 진로 활동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Career Activities of Vietnamese Graduate School  
Students of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in South Korea



2015년 2월

인하대학교 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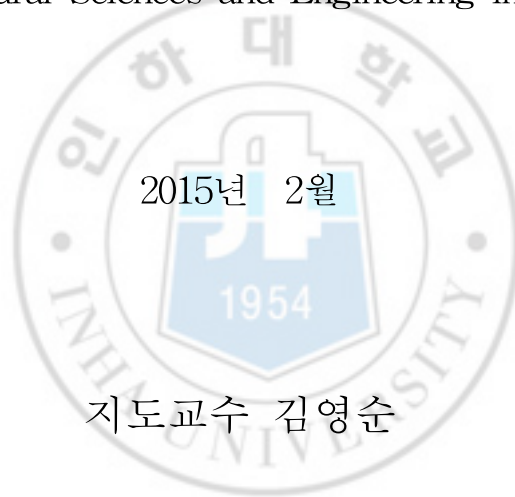
다문화학과(다문화교육전공)

김수경

교육학 석사학위 청구논문

한국 유학 베트남 이공계 대학원생의 진로 활동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Career Activities of Vietnamese Graduate School  
Students of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in South Korea



2015년 2월

지도교수 김영순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학과(다문화교육전공)

김수경

본 논문을 김수경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준함

2015년 2월



주심 \_\_\_\_\_

부심 \_\_\_\_\_

위원 \_\_\_\_\_

국문초록

## 한국 유학 베트남 이공계 대학원생의 진로 활동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학과 다문화교육전공

김 수 경

본 연구는 국내 베트남 이공계 유학생의 진로 활동 현상을 질적 연구 방법으로 기술한 것이다. 특히 영어로 된 전문기술용어의 사용으로 학문의 언어적 제약이 적은 이공계 유학생의 경우를 살펴어 이들의 진로 활동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국내 한 대학의 베트남 이공계 유학생 10명을 인터뷰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이들이 졸업 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실제로 어떤 진로 활동을 하는지, 준비 과정 중에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국내 베트남 이공계 유학생의 졸업 후 진로 계획은 본국의 대학 강사 혹은 연구원으로 취업하는 것, 전공에 관련된 회사나 한국계 기업에 취업하는 것, 그리고 전공에 관련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었다. 직업 분야로는 대부분 연구직을 선호했다.

진로 계획에 따른 연구 참여자들의 졸업 후 이동 방향은 귀국, 체류, 이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는데 여기에는 가족 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언어 실력 향상 등의 개인적 요인과 본국에서의 직장이 정해져 있는 상황, 전

문화된 환경, 언어의 제약 등의 환경적 요인이 뒤따랐다.

둘째, 베트남 이공계 유학생들의 진로 활동은 학업·연구에 집중, 전공 관련 실무 경험, 정보 수집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이들은 한국 유학을 통해 많은 연구 실적을 쌓거나 한국 회사에서 취업함으로써 전문적 실무 경험을 쌓아 향후 고용 시장에서 더 좋은 자격을 갖추고자 했다.

셋째, 한국에서의 진로 활동에 대한 어려움으로는 언어적 제약, 정보 제한, 체류의지 부족이 뒤따랐다. 특히 전문기술용어의 사용으로 언어적 제약이 될 것으로 여겨졌던 이공계 유학생들은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국어를 공부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한국에서의 유학을 향후 본국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여기고 있었다. 개발도상국의 많은 이공계 유학생들이 미국과 같은 주요 유학 국가에 정착해 두뇌 유출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베트남 이공계 유학생에게 한국은 정착보다 본국으로 돌아가고자 하여 두뇌 유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외국인 유학생, 베트남 유학생, 이공계 유학생, 유학생 진로, 유학생 진로 활동

# 목차

|                           |     |
|---------------------------|-----|
| 국문초록 .....                | i   |
| 목 차 .....                 | iii |
| 표 목 차 .....               | v   |
| <br>                      |     |
| <b>I. 서론</b> .....        | 1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1   |
| 2. 연구의 배경 .....           | 3   |
| <br>                      |     |
| <b>II. 이론적 배경</b> .....   | 7   |
| 1. 외국인 유학생의 특성 .....      | 7   |
| 1.1 유학 및 유학생에 대한 연구 ..... | 7   |
| 1.2 이공계 유학생의 특성 .....     | 11  |
| 2. 외국인 유학생과 진로 .....      | 13  |
| 2.1 진로 활동 .....           | 13  |
| 2.2 외국인 유학생의 진로 활동 .....  | 17  |
| <br>                      |     |
| <b>III. 연구 설계</b> .....   | 19  |
| 1. 연구 방법 및 과정 .....       | 19  |
| 1.1 연구 방법 .....           | 19  |
| 1.2 연구 과정 .....           | 20  |

|                                       |           |
|---------------------------------------|-----------|
| 2. 자료 수집 및 분석 .....                   | 21        |
| 2.1 자료 수집 .....                       | 21        |
| 2.2 자료 분석 .....                       | 24        |
| 3. 연구의 신뢰성과 윤리적 고려 .....              | 26        |
| <br>                                  |           |
| <b>IV. 연구 내용 및 결과 .....</b>           | <b>27</b> |
| <b>1. 사회경제적 지위 획득을 위한 발판 마련 .....</b> | <b>27</b> |
| 1.1 한국 유학을 통한 진로 전망 .....             | 28        |
| 1.2 한국 유학 이후 이동 방향에 관한 전망 .....       | 33        |
| <b>2. 좋은 자격 갖추기 .....</b>             | <b>42</b> |
| 2.1 학업·연구에 집중: 연구 실적은 나의 이력 .....     | 42        |
| 2.2 실무 경험: 이론 위주에서의 탈피 .....          | 46        |
| 2.3 정보 수집: 동료들과의 관계 활용 .....          | 49        |
| <b>3. 희망과 현실 사이의 딜레마 .....</b>        | <b>51</b> |
| 3.1 언어적 제약: 수업은 영어, 취업은 한국어 .....     | 52        |
| 3.2 정보 제한: 외국인 채용 기회 부족 .....         | 54        |
| 3.3 체류의지 부족: 이미 정해진 계획 .....          | 56        |
| <br>                                  |           |
| <b>V. 결론 및 제언 .....</b>               | <b>58</b> |
| <br>                                  |           |
| 참고문헌 .....                            | 65        |
| Abstract .....                        | 70        |
| 부    록 .....                          | 72        |



## 표 목차

|  |    |
|--|----|
| <표 1>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 추이 .....            | 3  |
| <표 2> 국내 베트남 유학생 수 추이 .....            | 4  |
| <표 3> 국내 베트남 유학생의 학위과정별 현황(2014) ..... | 4  |
| <표 4> 국내 베트남 유학생의 전공별 현황(2014) .....   | 5  |
| <표 5> 인터뷰 구성의 주요 내용 .....              | 20 |
| <표 6>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 .....            | 23 |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한국 유학 중인 베트남 이공계 학생의 진로 활동을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기술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 졸업자들이 자신의 학부 전공과는 무관하게 취업을 하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본 연구자는 우리나라에 유학 온 외국인 학생들의 경우 어떠한 상황과 목적을 가지고 진로를 결정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지니게 되었다. 특히 영어로 된 전문기술용어의 사용으로 학문의 언어적 제약이 적은 이공계 유학생의 경우를 살펴어 그들의 졸업 후 진로 계획과 진로 활동을 기술함으로써 국내 유학 현상을 설명하고 국내 유학 정책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했다.

유학생은 결혼 이민자와 같이 영구적 이민자는 아니지만 ‘타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라는 국제이주기구(IOM)의 정의에 따라 이주자의 한 구성원으로 여겨진다(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Migration, 2004: 67).

또한 유학생은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여겨져 최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상황에 발맞추어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Study Korea Project)’<sup>1)</sup>와 같은 정부 차원의 정책을 통해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국내 이공계 대학의 경우 졸업 후 취업의 어려움과 순수학문전공에 대한 기피현상이 더해져 대학생들의 대학원 진학률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국내의 저조한 이공계 진학 현실을 타파하고자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을 위

---

1) 스테디코리아 프로젝트(Study Korea Project)는 2004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이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고등교육의 세계 경쟁력을 강화, 국제적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 해외 우수 인적 자원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2004년 11월부터 정부의 중장기적 차원으로 추진되어오고 있다(김선태, 2005: 1).

한 장학금 증설, 인턴십 지원 등의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해외 우수 학생들을 유치하고 있다(엄미정 외, 2012: 13; 57).

그러나 유학생 유치가 인적 자원 활용 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학생은 졸업 후 취업 문제에 있어 여러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비자 문제, 취업 기회 제한, 유학생들을 위한 취업 전담기관의 부재 등이 이러한 어려움을 가증시키고 있다(강동관 외, 2010: 47-48).

국내 유학생에 관해서는 유학생 유치, 생활 및 문화 적응에 대한 연구가 대다수이다. 여러 학문 분야의 관점 부재로 인해 다양한 학문적 접근이 필요한 실정이다(박은경, 2010; 115-116). 그러므로 국내 유학생에 관한 연구가 그 동안 유학 생활, 문화 적응 등의 측면에 치중되었던 것에서 벗어나 인적 자원의 활용 측면에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유학생의 진로 활동을 다루는 본 연구가 유의미할 것이라 여겨진다.

특히 본 연구는 국내에서 유학 중인 베트남 이공계 학생을 사례로 이들의 진로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유학생의 경우 인문사회계열은 중국 출신 유학생의 비중이 높은 반면, 국내 이공계열은 동남아시아 지역 유학생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sup>2)</sup> 그 중 베트남은 국내 유학을 오는 여러 국가 중에서 항상 중국에 버금가는 주요 국가 중 하나이며, 동남아시아 지역 이공계 유학생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sup>3)</sup> 이들을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유학 베트남 이공계 유학생의 졸업 후 진로 계획과 그에 따른 진로 활동은 어떠한지, 진로 활동 중에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를 기술하고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

2) 교육부 2007~2014년도 외국인 유학생 통계 인용.

3) 교육부 2007~2014년 외국인 유학생 통계 인용. 베트남은 국내 유학을 오는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국가 중 매년 6위 안에 드는 주요 유학 국가이다.

## 2. 연구의 배경

유학생은 난민이나 이주 노동자들과는 달리 이주 국가에 정치적,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식되지 않는다(안영진, 2009: 349 재인용). 더불어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의 부분적 해소 가능성, 유학생의 두뇌 유출 보완 등의 측면에서 인적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어 주요 선진국마다 다양한 정책을 통해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강동관 외, 2010: 4).

우리나라도 같은 맥락에서 유학생 유치 정책을 시행하여 많은 유학생을 받아들이고 있다.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Study Korea Project)’는 2004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대표적인 유학생 유치 정책이다. 정부 차원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의 시행과 함께 많은 유학생을 받아들이고 있다. 적극적인 유학생 유치 결과로 현재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04년 이후 약 5배가량 증가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 추이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 추이

(단위: 명)

| 연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 인원 | 22,526 | 32,557 | 49,270 | 63,952 | 75,850 | 83,842 | 89,537 | 86,878 | 85,923 | 84,891 |

출처: 교육부(2014)

현재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8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주로 아시아 지역 출신이며 국내 유학생의 약 90%를 차지한다.<sup>4)</sup> 최근 아시아 지역 국가 간의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 특히 중국 유학생을 중심으로, 아시아 학생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이민경, 2012: 181).

4) 대학알리미 2014년도 외국인 유학생 통계 인용.

국내 베트남 유학생 수도 유학생 유치와 함께 꾸준히 증가했다. 최근 약 10년 동안의 국내 베트남 유학생 수 추이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국내 베트남 유학생 수 추이

(단위: 명)

| 연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 인원 | 705  | 1,179 | 2,242 | 1,817 | 1,787 | 1,914 | 2,325 | 2,447 | 2,998 | 3,166 |

출처: 교육부(2014)

<표 2>와 같이 국내 베트남 유학생은 2005년 705명에서 2014년 3,166명으로 약 4.5배 증가했다. 국내 베트남 유학생 수는 현재 어학연수생을 포함해 3,166명 정도이다.<sup>5)</sup> 이는 전체 유학생의 약 3.7%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중국계 유학생을 제외한 유학생 수에서는 6.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다음으로 국내 베트남 유학생의 학위과정별 현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국내 베트남 유학생의 학위과정별 현황(2014)

(단위: 명)

| 구분 | 학사과정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어학연수 | 기타  | 합계    |
|----|------|------|------|------|-----|-------|
| 인원 | 669  | 805  | 659  | 733  | 300 | 3,166 |

출처: 교육부(2014)

국내 베트남 유학생의 학위과정별 수는 학부과정 669명, 대학원생 1,464명(석사과정 805명, 박사과정 659명) 등으로 총 3,166명이며 그 중에서도 석사과정의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5) 대학알리미 2014년도 외국인 유학생 통계 인용

다음으로 현재 국내 베트남 유학생의 전공별 현황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국내 베트남 유학생의 전공별 현황(2014)

(단위: 명)

| 구분 | 인문사회계 | 이공계   | 예체능계 | 의학계 | 합계    |
|----|-------|-------|------|-----|-------|
| 인원 | 869   | 1,174 | 85   | 5   | 2,133 |

출처: 교육부(2014)

국내 베트남 유학생의 전공별 수는 인문사회계 869명, 이공계 1,174명, 예체능계 85명, 의학계 5명이다.

본 연구는 베트남 이공계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베트남은 본래 섬유, 봉제 업종이 산업의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전자, 기계, 건설 산업 분야가 발달하여 이에 대한 전문 인력의 필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IT,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는 베트남 정부에서 추진하는 중점적인 발전 분야 중 하나여서 기술 개발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듯, 베트남 내 IT산업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 IT전문 기술 및 전문 인력의 교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KOTRA, 2012: 88).

유학생의 이동 흐름을 살펴볼 때, 유학생이 경쟁력 있는 학력 자분을 얻기 위해 본국보다 더 나은 교육 환경의 국가로 이동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유학생의 이동과 관련하여 이민경(2012)은 한국이 아시아 지역 유학생에게 있어 주요 유학 지역인 미국, 유럽보다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속한다는 점과 다양한 장학금의 기회, 상대적으로 학비가 저렴하다는 점에서 많은 선택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이민경, 2012: 179). 베트남 역시 아시아 지역임을 고려할 때, 이들의 한국 유학 선택은 위와 같은 배경에서 이루어진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내 베트남 이공계 유학생이 어떤 목적으로 한국 유학을 선택했는지를 바탕으로 이들의 졸업 후 진로 계획과 그에 따른 진로 활동, 그리고 한국에서의 진로 활동 중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에 관해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 이공계 유학생의 한국 유학 현상에 관해 설명하고 이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두 가지 연구 문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유학 베트남 이공계 유학생의 졸업 후 진로 계획은 어떠한가?

둘째, 한국 유학 베트남 이공계 유학생은 어떠한 진로 활동을 수행하며 그에 따르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 II. 이론적 배경

### 1. 외국인 유학생의 특성

#### 1.1 유학 및 유학생에 대한 연구

일반적으로 유학이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가 아닌 다른 국가에 머물면서 학업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수에게만 허락된 기회로 여겨지던 유학은 소통의 발달, 고속화된 정보의 흐름, 많은 국가들의 주도적인 유학생 유치 정책 속에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Tremblay, 2005: 197).

유학생의 관점에서 유학은 고용 시장에서 보다 나은 기회를 갖기 위한 여러 선택 중 하나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커리어(career) 발전, 개인적 성장, 변화에 대한 투자로 국제적 교육을 추구한다(Hoare, 2012: 283). 선진 국가의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는 것은 고용 시장에서 다른 이들보다 더 우수한 커리어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유럽 지역과 같은 주요 유학 국가의 학위는 유학생들에게 자국의 고용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시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높여주는 작용을 한다(Weiss & Ford, 2011: 230 재인용). 때문에 국제적 교육은 많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도약시키는 ‘두 번째 기회’라 여겨지고 있다(Hoare, 2012: 271).

이주의 관점에서 유학생이 더 나은 기회를 얻고자 이동을 하는 경우 이는 향후 고속런 노동자의 국제 이주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IOM, 2010: 120). 학업을 마치고 좋은 자격을 갖추게 된 유학생이 졸업 후에 유학 국가의 고용 시장, 노동 인구의 한 부분에 속하게 된다면 고속런 노동자로 여겨



지기 때문이다(Tremblay, 2005: 201). 따라서 이주 노동자, 결혼 이민자 등과 달리 유학생은 주요 선진국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인적 자원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대표적인 예가 두뇌 유출(brain drain)현상이다. 두뇌 유출 현상은 해외에서 유학한 전문 인력들이 학업을 마친 후 본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유학 국가에 정주하거나 다른 국가로 다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한다(한응용 외, 2011: 271). 실제로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아시아 유학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IOM, 2010: 270) 미국은 대표적인 정착 국가 중 하나에 속한다(Tremblay, 2005: 206). 특히 이공계열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과학자들의 이동을 살펴볼 때, 여러 개발도상국의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 전문 인력은 본국보다 연구 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은 일부 선진국에 체류하거나,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한응용 외, 2011: 269).

두뇌 유출에 관한 연구들은 “고급 인적 자원들이 귀국하지 않는 것은 본국에서 밀어내는 요인(push factor)과 외국에서 흡인하는 요인(pulling factor)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이며 여기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요인들이 더해지는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고 말한다(진미석, 2007: 273).

유학생에게 있어서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갈지 혹은 유학 국가에 남을지, 또는 제 3국으로 이동할 지에 관한 고민은 대부분이 겪는 고민이다(Alberts & Hazen, 2005: 148). Hazen과 Alberts(2006)에 따르면, 유학생의 졸업 후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크게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개인적 요인은 크게 주변 사람들과의 네트워크, 가족 관계, 개인적 형편 등이 해당한다(Hazen & Alberts, 2006: 214).

사회적 네트워크는 유학생이 향후 이동 방향을 결정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유학생은 본국에서와 자신의 거주 국가에서 모두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자신의 소속감과 정체성이 다른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면서 본국과 유학 국가 간의 다양한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계발해 나아간다(Pham & Saltmarsh, 2013: 132).

가족 관계나 결혼 여부 등도 졸업 후 이동 방향을 고민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Lu, Zong, & Schissel, 2009: 306). 예를 들어, 가족에 대한 그리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 등은 유학생이 본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결혼한 경우라면 자녀의 정체성이나 교육 문제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가고자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유학생의 이동 방향은 유학 국가에 거주했던 기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혹은 성별(Lu, Zong, & Schissel, 2009: 283)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계획은 유학을 오기 전에 졸업 후의 진로를 확실히 정하고 왔다 하더라도 유학 국가에서 생활하면서 개인적 형편에 따라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다(Hazen & Alberts, 2006: 208). 예를 들어, 학업을 마친 후 본국에 돌아가기로 계획하고 있었으나 학업을 더 지속할 필요가 생긴다면 유학 국가에 계속 머무르거나, 혹은 다른 국가로 다시 이동할 수 있다.

반면,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 본국과 유학 국가 간의 교육·경제적 차이, 노동 시장 조건, 정치적 상황 등을 들 수 있다(Hazen & Alberts, 2006: 214).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기회 또는 우수한 연구 결과를 낼 수 있는 전문적 환경 등은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Mosneaga & Winther, 2013: 183 재인용). 예를 들어, 유학생은 본국에서보다 더 나은 전문적 환경, 급여, 복지수준 등을 갖춘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유학 국가에 머물거나 다른 국가로 이동 계획을 세우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반대로 해외 학위 취득 등으로 인해 본국의 고용 시장에서 더 유리한 점을 얻을 수 있는 등의 환경적 요인이 작용한다면 귀국을 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학 국가에서 직업을 갖고자 했으나 언어의 제약 등과

같은 문제를 겪는다면 이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처럼 유학생은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 본국으로 귀국, 체류, 혹은 제 3국으로의 이동을 결정한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은 개별적이기보다는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

주요 유학 국가의 경우 몇몇의 연구들은 유학생의 학업 세계와 직업 세계 (study to work) 이행 과정이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에서(Alberts & Hazen, 2005; Hazen & Alberts, 2006; Geddie, 2013)을 다루고 있다(Mosneaga & Winther, 2013: 183-184).

Mosneaga와 Winther(2013)는 덴마크 내의 이공계 유학생의 사례를 들어 유학생이 학업을 마친 후 덴마크에서 일자리를 갖는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연구 참여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했다. 일과 생활의 균형, 여유 있고 편안한 직장 문화, 높은 수준의 복지 시스템과 높은 임금 등은 유학생에게 유학 국가에서 일자리를 얻는 데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그러나 인종차별과 같이 거주 사회의 수용성과 관련된 문제들은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로 제기되기도 했다(Mosneaga & Winther, 2013). 하지만 본 연구와 관련하여 덴마크라는 배경은 국내의 문화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국내를 배경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아시아 지역의 유학 현황을 살펴볼 때, 기존의 미국, 유럽 지역은 주요 유학지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다양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대학 교육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어 아시아 유학생의 이동이 증가하고 있다(박소진, 2013: 196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는 거시적 측면에서 아시아 내 유학생의 사례를 통해 개발도상국에서 이공계 유학생의 진로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1.2 이공계 유학생의 특성

과학 분야 내 이공계 유학생 중 특히 대학원생이나 박사 후 과정의 연구원은 기술 개발에 있어 브레인 파워(brain power)의 잠재적 자원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이들을 유치하려는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왔다(Geddie, 2013: 197). 그 중에서도 미국은 전 세계의 많은 이공계 유학생이 선택하는 정착지 성향을 보인다. 다양한 국적과 인종을 가진 학생들은 미국에서 최신 선진 기술을 습득하고 정착하기 때문에 과학기술 연구 분야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연구 실적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Tanyildiz, 2013: 1-2). Alarcon(1999)에 따르면, 미국의 실리콘 벨리(Silicon Valley)는 고숙련 노동자들의 집결지와 같다. 본국의 고학력자들보다 아시아 지역 유학생이 박사 후 과정으로 이주해 온 경우가 훨씬 많으며, 이들은 대부분 미국의 하이테크놀로지(high-technology)관련 회사에서 근무한다. 실리콘 벨리는 높은 임금 및 더 좋은 연구 기회 제공, 중산층의 지위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고숙련 노동자의 체류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말한다(Alarcon, 1999: 1393).

반면 한국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은 향후 진로에 대해 한국을 디딤돌로 삼아 다른 국가로의 이동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한국이 개발도상국의 아시아 학생들에게 선호를 받는 것은 아시아 지역 내 사회 문화적, 지리적으로 가까우며 비용면에서도 미국 및 유럽 등의 지역 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민경, 2012: 193-196)이라고 여겨지는 점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이동 방향을 살펴본 안영진(2009)의 연구에 의하면, 45.6%의 학생들이 귀국해 취업하는 것을 희망했고, 21%의 학생들이 한국 내 취업 및 상위 과정 진학을 계획하고 있었다. 또한 8.9%의 학생들이 제 3국으로의 이동을 계획하고 있었다(안영진, 2009: 357).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진로 계획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기보다는 기초 자료만을 제공하고 있어 유학생들이 왜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지, 제 3국으로 어떤 나라를 고려하고 있는 등의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허재준 등(2011)의 연구는 유학생의 44.2%가 졸업 후 국내 취업 의사를 보였으며,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길수록 한국에서의 취업 의사가 적극적임을 제시한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특히 중국, 베트남, 몽골 유학생이 취업에 적극적이었으며 이는 본국과의 경제 수준 차이가 그 원인으로 해석되었다. 희망 기업으로 중국과 몽골 유학생은 민간 기업을, 베트남 유학생은 연구 기관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학원생의 경우 전공계열별로 살펴봤을 때, 인문사회계열 학생은 한국계 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것이 대다수임에 반해, 공학 전공자는 국내 취업 의사가 가장 높았다. 대학원생과 이공계 학생은 취업을 통한 기술 습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취업 후 원하는 체류 기간으로는 1~2년 사이가 가장 많으며, 여학생일수록 단기적 체류를 선호하고 공학 전공자일수록 장기 체류를 원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들의 희망 취업 체류 기간이 1~2년임을 고려해볼 때, 이는 본국 혹은 제 3국으로 이동하는 것보다도 관련이 있음을 제시했다(허재준 외, 2011: 135-140). 이와 관련해 본 연구는 국내 베트남 유학생이 어떤 맥락에서 1~2년의 기간을 고려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베트남 이공계 유학생이 왜 한국 유학을 선택했는지, 국내 및 본국에서 어떻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지, 한국에서 생활하는 환경은 어떻게 느끼는지 등의 분석을 통해 이들의 졸업 후 진로 계획과 그에 따른 이동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외국인 유학생과 진로

진로 활동은 크게 진로 결정 수준, 진로 준비 행동, 진로 장애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진로 결정 수준은 진로에 대한 목표 수준을 뜻하고, 진로 준비 행동은 진로 목표에 따른 행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진로 장애 요인은 진로 목표를 성취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말한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진로 활동은 졸업 후 이동 방향에 맞추어 살펴볼 수 있다. 이들이 졸업 후 진로 계획에 따라 어떤 준비 과정을 거치는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장벽은 무엇인지를 살펴 볼 것이다. 먼저 청년층의 진로 활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고, 본 연구의 대상인 유학생의 진로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2.1 진로 활동

첫째, 진로 결정 수준(career decision level)이란 진학이나 취업과 같이 자신의 향후 진로에 대해 확신하는 정도를 뜻한다(이수영·이영민, 2009: 74 재 인용). 김봉환과 김계현(1997)의 연구에 따르면, 진로 발달 이론에서 진로 계획 및 활동은 생의 어느 한 시기에 일회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고 발달한다(김봉환·김계현, 1997: 315). 즉, 진로는 이전부터 쌓아 온 경험을 토대로 한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진로 준비는 대학생에게 학업 세계에서 직업 세계로의 이행에 있어 더욱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조명실·최경숙, 2007: 15-16). 대학 생활 시기는 진로 결정에 있어 중요한 시점일 뿐 아니라 직업인으로서 사회에 진출하기 전 단계이므로 취업을 위한 준비 활동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기이다(김정화 외, 2012: 419). 최근 국내 대학생의 경우 취업난 현상으로 인해 대

학에서 학업을 수행함과 동시에 취업에 대한 진로 계획을 세우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로를 준비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둘째, 진로 준비 행동은 개인이 진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으로 국내에서는 김봉환(1997)에 의해 처음으로 ‘진로 준비 행동’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진로 준비 행동은 인지나 정서 차원을 넘어 실제적이며 구체적 행위를 의미한다. 즉, 개인이 진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얼마나 구체적으로 행위적인 노력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김정화 외, 2012: 422 재인용).

김봉환의 ‘진로 준비 행동’은 이제경과 김동일(2004)에 의해 ‘취업 준비 행동(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이란 개념으로 더욱 구체화 되었다. 취업 준비 행동은 진로 준비 행동과 유사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이다. 진로 준비 행동이 보다 전반적이고 장기적인 개념에서 접근한다면, 취업 준비 행동은 일자리 찾기라는 영역 안에서 좀 더 구체화되고 현실적인 측면을 다룬다. 진로 준비 행동이 진로 계획을 넘어 행동을 수반하는 것이라고 볼 때, 취업 준비 행동은 취업이라는 목표 안에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서 갖추어야 할 자격들을 하나씩 갖추어 가는 준비 행동이다(이제경·김동일, 2004: 108).

취업 준비 행동의 한 예로 국내에서 많은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이른바 ‘스펙 쌓기’하는 현상을 들 수 있다. 학생들은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기도 하며 자신의 전공이나 관심 분야의 회사 및 기관에서 인턴십 경험을 쌓기도 한다. 외국어 관련 자격증은 국내 청년들에게 필수적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어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오거나 유학을 결정하기도 한다. 더불어 학생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찾는다. 취업정보 웹사이트를 활용하기도 하고, 친구 및 선후배를 통해 정보를 얻기도 하면서 다양한 취업 준비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승구와 이제경(2008)에 따르면, 진로 결정 수준과 진로 준비 행동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진로 준비 행동의 수준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진로 및 취업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는 수준이 개인마다 다양하고, 각 개인의 환경에 따라서 진로 준비 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진로 준비 행동은 개인마다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이승구·이제경, 2008: 6). 즉, 취업 목표가 설정되면 그 목표에 맞게 구체적인 준비와 행동을 하는 것이다.

진로 결정 수준과 진로 준비 행동은 유형화도 가능하다. 몇몇 연구들은(김봉환·김계현 1997; 김정화 외, 2012) 진로 결정 수준과 진로 준비 행동에 따라 군집 유형을 분류했다. 진로 결정 수준과 진로 준비 행동이 둘 다 높으면 자신의 진로에 명확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고 불안감이 매우 낮다. 진로 결정 수준은 높으나 진로 준비 행동이 낮으면 비교적 명확한 계획은 있으나 그에 따른 행동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고, 진로 결정 수준은 낮으나 진로 준비 행동이 높으면 방향이 설정되지 않은 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불안 수준이 높다. 마지막으로, 진로 결정 수준과 진로 준비 행동이 모두 낮다면 진로에 대한 정체감이 낮고 불안 수준이 매우 높다(김봉환·김계현, 1997; 324; 김정화 외, 2012; 431).

이수영과 이영민(2009)은 국내 이공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결정 수준과 진로 준비 행동을 직업 세계 이해, 진로 탐색 계획 및 활동으로 나누어 분석했는데, 이공계 학생들은 진로 결정 수준이 낮은 편에 속한다고 말한다. 또한 이들의 진로 준비 행동은 인터넷, 교수, 학교 게시판 등을 활용한 정보 수집 활동이 가장 일반적이었다. 성별 차이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미래의 직업과 관련된 업무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말한다(이수영·이영민, 2009). 하지만 이러한 점은 국내 학생, 학부생만을 대상으



로 하고 있어 유학생, 대학원생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셋째, 진로를 준비함에 있어 장애 요인도 발생할 수 있다. 진로 장애 요인은 진로 장벽이라고도 하는데, 진로 준비와 관련해 진로 목표와 행동을 어렵게 하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들로 핸디캡, 차별, 부정적인 피드백 등에 의한 방해로 말한다(김정화 외, 2012: 423 재인용). 유학생의 경우 언어 문제, 정보 제한과 같은 점이 진로 활동의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이라 여겨진다.

국내 이공계 학생들의 취업 준비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진로 계획과 행동에 연관된 변인들을 연구했는데, 그 중에서도 성별 차이가 주된 관심사였으며 공학 전공 대학생들에게서 성별 차가 나타난다고 보고한다(강승희, 2010: 152).

연규진 등(2013)은 이공계 대학을 중심으로 성별에 따른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진로 장벽의 차이를 연구했다. 이에 따르면, 대학원생도 학교의 진로 지원 부재 등과 같은 이유로 학부생들과 마찬가지로 진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공계 여학생들이 이공계 남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진로 장벽을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 대학원생의 경우 대인 관계로 인한 진로 장벽을 상대적으로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서는 학부과정에서 수업 위주로 진행되는 분위기와는 달리 대학원은 연구 및 프로젝트 중심의 환경에서 선배의 역할과 권위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며, 또한 남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공계 연구실에서 남성 문화 중심으로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언급한다(연규진 외, 2013).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이공계 유학생에게는 어떤 진로 장벽이 있는지와 성별에 따른 제약 여부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 2.2 외국인 유학생의 진로 활동

외국인 유학생도 국내 대학생과 유사하게 졸업 후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된다. 실제로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겪는 어려움 중에서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이 학업 및 장래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라는 결과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이다(나임순, 2006: 177).

외국인 유학생의 진로 결정 수준이나 진로 준비 행동에 관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유학생의 진로 활동을 살펴보기 위해 이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한국 유학을 선택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허재준 등(2011)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이유는 ‘한국어 습득 및 한국 문화를 경험을 위해서’나 ‘본국의 한국계 기업으로 취업 및 한국과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등이었다. 허재준 등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유학생이 한국으로의 직접 취업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과 관련된 문화 혹은 기술 습득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한다(허재준 외, 2011: 148).

유학생이 학업 중에 취업과 관련된 경험을 하게 되거나 더불어 그 경험이 긍정적인 경우 졸업 후 유학 국가에서의 취업 의사가 높아진다(허재준 외, 2011: 5). 이와 관련해 서울의 한 대학의 유학생을 사례로 한 주휘정(2010)의 연구는 인턴십이 직업 사회로 진출하는 유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여 진로 결정을 위한 탐색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대부분 국내 기업에서의 인턴십을 선호한다고 말한다(주휘정, 2010: 150-151).

국내 유학생의 진로 활동을 다룬 연구는 드물지만 중국 유학생의 진로 활동 관한 몇몇의 연구(정은이, 2009; 복락, 2009; 허형원·손은령, 2011)들이 있다. 중국 유학생은 발전 가능성, 적성, 임금 등을 직업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며 성별에 따라 직업 선택 요인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복락, 2009: 29-30). 중국 유학생은 원하는 전공 공부와 더 좋은 직장

및 외국어 습득을 위해 유학을 결정했지만 부족한 한국어 능력, 대학의 지원 부족, 진로 상담 기회 결여, 주변 사람들의 높은 기대 등으로 인해 진로 장벽을 느끼고 있었다(허형원·손은령, 2011: 61).

유학생의 학업 및 진로 활동에서 가장 많은 느끼는 어려움 중 하나는 언어 문제이다.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학습하는 것은 의사소통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주휘정, 2010: 141). 하지만 이공계 대학원 유학생은 주로 전문기술용어 및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언어적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적고 취업에 대한 이동이 보다 자유로울 것이라 생각되었다.

베트남 유학생의 차원에서 동남아시아 지역 유학생의 한국 문화 적응을 다루는 연구(산다툰, 2012)는 있지만 베트남 유학생만을 위한 연구나 이들의 진로 활동에 관한 연구는 아직 없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유학 베트남 이공계 유학생이 진로 계획에 따라 어떠한 진로 활동을 수행하는지를 진로 결정 수준과 진로 준비 행동에 비추어 살펴보고, 그에 따르는 어려움 및 진로장벽은 어떠한지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 Ⅲ. 연구 설계

#### 1. 연구 방법 및 과정

##### 1.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국내 베트남 이공계 유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진로 활동에 대해 살펴보는 질적 연구이다. 본 주제의 경우 국내 한 대학을 사례로 삼아 베트남 이공계 유학생이 ‘진로 활동’이라는 주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례 연구 방법(case study method)을 사용하였다. Creswell(2010)에 따르면, 사례 연구는 현장이나 맥락과 같이 경계를 가진 체계를 연구하는 것으로, 체계 내 한 가지 이상의 사례에 관한 연구를 포함시킨다. 사례 연구는 질적 연구의 하나로써 연구자가 시간 경과에 따라 경계를 가진 체계, 사례들을 탐색하고 관찰, 면접 등의 다양한 정보 원천들을 포함해 세밀하고 심층적인 자료들을 수집하며, 사례 기술 및 사례에 관한 주제들을 알린다(Creswell, 2010: 111).

사례 연구에서 자료 수집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인터뷰와 연구 일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했다. 인터뷰는 이들이 청년으로서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계획과 이를 준비하는 과정 및 경험을 분석하기에 가장 적절한 자료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유학 베트남 이공계 유학생이 어떤 이유로 한국 유학을 선택했는지, 현재 한국에서의 생활은 어떠한지, 향후 진로 계획 및 진로 활동은 어떠한지 등을 연구 참여자들의 내러티브 및 참여 관찰, 문헌

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1.2 연구 과정

본 연구는 크게 문헌 분석, 질문지 구성, 연구 참여자 선정, 자료 수집, 자료 분석 절차를 거쳐 수행되었다.

먼저 연구자는 유학생에 관한 문헌 분석을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인터뷰에 필요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동시에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베트남 유학생 모임 및 교내 유학생 행사 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이들과 라포(rapport)를 형성하였다. 어느 정도 관계를 쌓은 후 이들에게 연구 참여 의사를 물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인터뷰를 수행함과 동시에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헌 분석 후 2012년 12월부터 인터뷰용 질문지를 반 구조화 형식으로 구성하였다(<부록 3> 참조). 질문지는 한국 유학을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는 유학 동기, 학업 및 연구 생활을 알 수 있는 유학 생활, 마지막으로 졸업 후 진로 계획 및 진로 활동을 살펴보는 진로 준비 과정의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인터뷰 구성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인터뷰 구성의 주요 내용**

| 구성범주     | 세부항목  |
|----------|---|
| 유학 동기    | 가족 배경, 본국에서의 교육 정도, 유학 동기, 한국을 선택한 이유, 현재 대학 및 전공을 선택한 이유 등 |
| 유학 생활    | 본인 전공에 대한 적응, 학습 경험, 어려움과 대처방법 등                            |
| 진로 준비 과정 | 향후 진로 계획, 국내 취업 선호도, 취업을 위한 노력 방법, 취업에 있어서의 어려움 등           |

더불어 현재 재학 중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질문지 작성과 동시에 자료의 다양화를 위해 졸업 후 현재 한국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졸업자용 질문지도 한 부를 구성했다(<부록 4> 참조). 유학생의 경우 졸업 후 다양한 요인에 따라 유학 국가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실제로 연구 참여자들과 같은 대학교에서 유학 생활을 마친 이들이 현재 한국에서 어떻게 일을 하게 되었는지, 한국에서 일하는 경험은 어떠한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도 함께 알아보고자 했다.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질문지도 현재 대학원생인 연구 참여자들과 비슷한 범주로 구성했다. 유학 동기, 현재 생활, 진로 준비 과정 등 세 가지 범주로 구성했다. 이들이 졸업 후 어떤 과정을 통해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게 되었으며 현재 생활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진로를 위해 어떤 계획과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 2. 자료 수집 및 분석

### 2.1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사례로 선정된 A대학교는 이공계 중심의 대학교이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 대학’으로 선정된 곳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국내 베트남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대학원생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공계 대학원생의 경우 유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인턴십 지원 등으로 적극적인 유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문기술용어 사용과 같은 이유로 언어적 제약이 적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특징들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베트남 이공계 유학생의 이야기를 수집하기 위해 연구자는 주변 동료들에게 연구 주제와 내용을 알렸고 연구 참여자들을 모집했다. 기존에 알고 있던 1~2명의 베트남 유학생의 도움을 받아 베트남 유학생의 정기적 모임에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교내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준비하는 다문화 관련 축제를 도우면서 베트남 유학생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여 이들과 라포를 형성했다. 라포를 형성하면서 주 정보 제공자(key informant)를 만나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모집 초기에는 연구 참여자와의 관계를 통해 점점 다른 연구 참여자의 수를 불러 나가는 스노 볼링(snow balling) 방식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계속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다 보니 개인적인 사유로 인터뷰를 거절한 학생과, 인터뷰 당시 정식 학생이 아닌 입학 예정자로 분류된 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을 인터뷰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베트남 유학생 커뮤니티 안에서 이공계 대학원생 및 졸업자 10명을 선정하고 동의를 얻어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

| 구분           | 성별, 나이   | 전공<br>(현재 상태)      | 체류 기간<br>-인터뷰 당시- | 유학 전<br>본국에서의<br>취업경험 | 현재<br>본국에서<br>직장유무 | 장학금<br>수혜여부 |
|--------------|----------|--------------------|-------------------|-----------------------|--------------------|-------------|
| 연구 참여자<br>1  | 여,<br>26 | 정보통신공학<br>(석사과정)   | 약 1년              | 연구보조원                 | 있음                 | 수혜*         |
| 연구 참여자<br>2  | 남,<br>29 | 정보통신공학<br>(석사과정)   | 약 1년              | 연구보조원                 | 있음                 | 수혜*         |
| 연구 참여자<br>3  | 여,<br>26 | 정보통신공학<br>(통합과정)   | 약 3개월             | 연구보조원                 | 있음                 | 수혜          |
| 연구 참여자<br>4  | 남,<br>28 | 신약개발학<br>(석사과정)    | 약<br>1년 6개월       | 연구보조원                 | 있음                 | 수혜          |
| 연구 참여자<br>5  | 남,<br>32 | 기계공학<br>(박사과정)     | 약<br>1년 6개월       | 연구보조원,<br>회사원         | 있음                 | 수혜          |
| 연구 참여자<br>6  | 여,<br>26 | 화학<br>(통합과정)       | 약 7개월             | 연구보조원                 | 없음                 | 수혜          |
| 연구 참여자<br>7  | 남,<br>27 | 컴퓨터·정보공학<br>(통합과정) | 약 5개월             | 회사원                   | 없음                 | 수혜          |
| 연구 참여자<br>8  | 남,<br>25 | 신소재공학<br>(통합과정)    | 약 5개월             | 없음                    | 없음                 | 수혜          |
| 연구 참여자<br>9  | 남,<br>31 | 정보통신공학<br>(회사원)    | 약 8년              | 없음                    | 없음                 | 수혜          |
| 연구 참여자<br>10 | 남,<br>32 | 생물공학<br>(박사 후 과정)  | 약 7년              | 연구보조원,<br>회사원         | 없음                 | 수혜          |

\* 는 교내, 교외 장학금 수혜자

베트남 이공계 유학생의 국내 거주 기간은 인터뷰 당시 약 3개월~약 8년  
까지로 다양했다. 몇몇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인터뷰 당시 한국으로 유학을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진로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미리 밝힌다. 한편, 자료의 다양화를 위해 선정된 연구 참여자 9와 10은 연구 참여자들과 같은 A대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에서 취업한지 약 1년째이다. 연구 참여자 2는 러시아에서 유학한 적이 있으며, 연구 참여자 2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들에게 한국이 첫 번째 유학 국가였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한국에 유학을 오기 전의 대학교에서 연구보조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이 있었고, 몇몇 학생은 현재도 본국의 연구보조원으로 소속되어 있었다. 전체 연구 참여자 중 7명이 연구보조원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7명 중 5명은 현재도 베트남 대학교의 연구보조원으로 소속되어 있었고, 2명은 연구보조원을 그만둔 후 한국 유학을 선택했다. 본국에서 일반 회사에 다녔던 연구 참여자는 총 3명이었다. 3명 중 2명은 연구보조원으로도 근무했었고, 1명은 회사에서만 근무했던 경험이 있었다.

또한 모든 학생들이 교내 장학금을 수혜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전액 혹은 부분 장학금을 받고 있었다. 이들은 교내 장학금 외에 이공계 연구의 특성상 주로 연구실별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었다. 다만 연구 참여자 7의 경우 장학금 외의 부족한 학비는 부모님께 도움을 받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1과 2는 교내 장학금 이외에 교외 장학금도 수혜하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한국 기업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 2.2 자료 분석

연구자는 베트남 이공계 유학생의 인터뷰를 통해 유학생의 진로 계획과 진로 활동 및 어려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자 했다. 인터뷰가 끝난 후 녹음된 파일을 들으면서 전사하였다. 전사와 동시에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질적 연구는 자료의 수집부터 연구를 마치기까지의 과정이 서로 상호

의존적으로 연계된 연구로 양적 연구와 비교했을 때 유연성(flexibility)의 차이를 가지는데, 대부분의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와 다르게 연구 설계 및 진행에서 좀 더 유연성을 가진다. 즉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관계에서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미영, 2012: 21-33).

녹음된 인터뷰 자료는 자료 분석 프로그램인 NVivo9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NVivo와 같은 질적 자료 분석 프로그램은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조사하려는 단어나 구와 유사하게 부호화된 자료를 신속하게 모으고 검색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Saldana, 2012: 50).

코딩은 주로 초기 코딩(initial coding), 현장 코딩(in vivo coding)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초기 코딩은 연구자의 추가 연구를 위해 분석 지침을 제공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예측하게 하는 시발점 역할을 한다(Saldana, 2012: 130 재인용). 또한 현장 코딩은 어떻게 행위자들의 기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거나 처리되는 것에 관해 연구자에게 설명할 행동이나 과정을 이행하는 것을 돕는다(Saldana, 2012: 121 재인용).

사례 연구의 분석은 사례와 그 맥락에 대하여 꼼꼼하게 기술하는 것으로 구성되며 주제 및 패턴 구성을 위하여 범주화된 집합을 사용하기도 한다(Creswell, 2010: 219; 227). 연구자는 NVivo9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유학생의 한국 유학 동기, 현재 유학 생활, 진로 준비 과정에 관한 내러티브를 분석하여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문장이나 구절들을 찾아냈다. 코딩을 실시한 결과 233개의 의미 범주를 찾아냈고, 이를 다시 반복되는 구절들을 묶고 연구 문제에 따른 주제들을 분류하여 14개의 소주제를 찾아냈다. 그리고 이들이 졸업 후 계획, 이동 방향, 학업 생활, 진로 활동, 한국 취업 여부 등에 따라 이후 7개의 항목으로 분류했다. 이후 진로 계획, 진로 활동, 어려움과 관련된 세 가지 주제를 찾을 수 있었다.

### 3. 연구의 신뢰성과 윤리적 고려

인터뷰를 위한 질문지는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까지 주변 동료 연구자들에게 서너 차례 검증을 부탁하여 삼각측정(triangulation)을 수행하면서 수정, 보완했으며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진행된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검증을 거쳐 추가 보완되었다.

인터뷰는 2013년 5월 초부터 2013년 9월 초까지 진행되었다. 주로 연구 참여자의 연구실이나 학교 근처 카페에서 만남을 가졌다. 인터뷰 시작 전에는 미리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 설명서(<부록 1>)와 함께 연구 윤리 내용을 알리고 연구 참여자들의 자발적 동의를 통해 연구 참여 동의서(<부록 2>)를 받았다. 이후에는 왜 한국 유학을 선택했는지, 현재 연구실에서의 생활은 어떠한지, 졸업 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부탁했다.

문헌 고찰 결과와 같이 이공계 유학생의 경우 주로 영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뷰는 영어로 진행되거나 한국어-베트남어 통역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었다. 기본적으로 영어를 사용해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했으며 통역이 필요할 시에는 한국어와 베트남어에 능통한 주변 동료 연구자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었다. 인터뷰 진행 시 언어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편한 언어로 이야기해 달라고 했다. 인터뷰에서 2명은 주로 한국어-베트남어 통역을 통해 진행했고 그 외에는 영어 및 한국어-베트남어 통역의 도움을 받아 진행했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연구자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기 위해 노력했다. 인터뷰 시간은 개인별로 1~2회, 평균 약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영문 인터뷰 번역 및 자료 분석은 주변 동료 연구자들에게 검증을 받아 수정, 보완하면서 삼각측정을 수행하였다.

## IV. 연구 내용 및 결과

‘진로’에 관한 이야기는 청년이라는 시기에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 유학을 통해 더 나은 자격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다. 졸업 후 진로 전망은 본국의 대학교에 소속되어 일할 수 있는 대학 강사 및 연구원으로 취업, 전공과 관련된 회사나 한국계 기업으로 취업, 실력과 경력을 충분히 쌓은 뒤 전공과 관련된 회사를 설립하는 것 등이었다. 이에 따른 이동 계획은 귀국, 체류, 이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개인적, 환경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학업·연구 활동에 집중, 한국에서의 취업을 통한 실무 경험 등을 통해 진로를 준비하고 있었다. 때때로 한국에서의 취업을 준비하는 중에는 언어적 제약과 같은 어려움도 함께 겪고 있었다.

한국 유학 베트남 이공계 유학생의 진로 활동을 통해 한국이 미국과 같은 정착 성향을 보이기보다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향후 이들을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 1. 사회경제적 지위 획득을 위한 발판 마련

베트남 이공계 유학생의 진로 계획을 살펴보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떤 목적으로 한국에 왔으며, 한국 유학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는지에 대해 아는 것이었다. 연구자는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문헌 분석 단계에서는 알 수 없었던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그것은 베트남 이공계 유학생이 한국에 오기 전 대부분 본국에서 직업을 가졌던 경험이 있거나 현재까지

도 본국의 직장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졸업한 본국의 대학교에서 연구보조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이 있거나 혹은 일반 기업에서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었다. 이들은 한국 유학을 통해 본국보다 발전한 기술을 습득하고 더 좋은 연구 성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진로에 있어 더 좋은 자격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더 좋은 자격을 갖추기 위한 이들의 진로 계획을 진로 전망과 이동 방향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1 한국 유학을 통한 진로 전망

인터뷰를 통해 살펴본 연구 참여자들의 졸업 후 진로 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 전공을 활용할 수 있는 연구직을 선호했고 궁극적으로 본국에 돌아가서 대학교에 소속된 강사나 연구원이 되기를 희망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본국에서 연구보조원으로 활동했거나 현재도 본국의 대학교에서 연구보조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연구 참여자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연구보조원이 석,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되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정식 강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원래 여기에 오기 전에 목표가 있었어요. 제가 공부하는 대학에서 강사가 되는 거예요. 강사가 되려면 석사, 박사학위를 받아야 하는 조건이 있어서 이렇게 공부하면 베트남에 가서 확실히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연구 참여자 1)

“지금 학위과정을 졸업하고 나면 박사과정에 진학하려고 해요. 박사과정이 끝나면 베트남으로 돌아가서 제가 일하고 있는 베트남의 대학교에서 계속 일을 하려고 해요. 베트남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책을 읽고

강의를 준비하고, 연구도 했어요. 실험실에서 실험도 했어요. 저의 업무는 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과 실험실에서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연구 참여자 4)

연구 참여자 1과 4는 유학 전 연구보조원으로 선발되어 지도교수의 강의 및 연구 활동을 도왔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실력을 쌓아 정식 강사가 되기 위해 한국 유학을 선택했다. 두 명 다 언젠가는 자신이 있던 대학교로 다시 돌아가 전임 강사가 되고자 하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연구 참여자 4의 인터뷰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강사에 대한 직업 조건은 현재 한국의 환경과는 조금 다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대학 교수자가 되기 위한 과정은 학위를 취득한 후 선발을 거쳐 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학부과정 후에 연구보조원 선발 시험을 실시하는데 선발된 학생은 상위 과정의 학위 취득 등의 조건을 통해 정식 강사 자격을 갖출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한국 유학은 개인적 선택임과 동시에 부분적으로는 인적 자원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려는 베트남 대학의 관리 차원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연구 참여자들이 대학 강사가 되고 싶은 이유는 저마다 달랐는데 적성에 맞거나 혹은 베트남의 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등의 개인적인 이유들이 존재했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전공과 관련된 회사 혹은 한국계 기업에서의 취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주로 현재 본국에서의 직장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연구 참여자에게서 나타났다. 이들은 본국에서 일했던 경험과 한국 유학 경험을 바탕으로 전보다 더 좋은 일자리를 얻고자 했는데 이러한 경우 유학은 ‘두 번째 기회’로 활용되기도 했다. 위와 같은 연구 참여자들은 졸업 후 자신이 일했던 대학의 강사나 연구원으로의 취업을 우선적으로 희망하기도 하였지만 전공과 관련된 일반 회사로의 취업도 고려하는 등 보다

폭 넓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자: 거기에서도 지금 소속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자리를 미리 잡지는 않았어요. (중략) 5년 뒤에 다른 직업을 찾을 수도 있고, 다른데 갈 수 있어서… (연구자: 다른 데라고 하면 다른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베트남인데 다른 학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회사일 수도 있어요. (중략) 경험이라는 것은 화학 약품에 관련된 기기나 연구하는 기술에 대한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학교에 못 가더라도 기기에 대해서 많이 알아두면 실험 기기를 파는 회사에서 기기를 팔 수 있어요. 회사원이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연구 참여자 6)

연구 참여자 6은 한국에 오면서 연구보조원을 그만두었다. 유학을 마치고 본국에 돌아가면 현재보다 더 좋은 자리를 찾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이다. 우선적으로 자신이 근무했던 대학교의 강사로 지원하고자 하지만 전공과 관련된 회사로의 취업도 함께 고려하고 있었다. 화학을 전공하는 연구 참여자 6은 일반 회사로의 취업을 대비하여 전공에 관련된 화학 약품이나 실험 기기에 대해서 많이 알아두는 것에도 관심이 있었다.

다음은 전공에 관련된 일반 회사나 한국계 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또 다른 사례이다.

“사실 한국 유학은 부모님의 권유로 왔어요. 제 생각에는 꼭 외국에 안 나가도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은 외국에 나가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유학 왔어요. (중략) 외국에서 연구하는 그런 조건이 베트남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면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베트남에 들어오면 더 많은 일을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외국 회사에 취직 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

요. (중략) 저는 지금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요. 만약에 앞으로 베트남에 가서 한국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많이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연구 참여자 7)

연구 참여자 7은 베트남에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공기업인 철도회사에서 약 3년 동안 근무했다. 앞으로 한국 유학을 기회 삼아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 연구직으로의 취업을 계획하고 있었다. 본래 연구 참여자 7은 유학 생각이 없었으나 부모님의 권유로 한국 유학을 선택했다. 그리고 부모님의 권유로 인해 외국계 기업으로의 취업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연구 참여자 7은 베트남에 있는 한국계 회사로의 취업을 고려해 한국어를 배우고 적극적으로 한국 문화도 익히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6과 7의 사례는 이들이 유학을 현재보다 더 나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선택했음을 잘 보여준다. 연구 참여자 6은 한국 유학을 통해 더 좋은 직업을 얻을 것이라 생각해 연구보조원을 그만두었고, 연구 참여자 7은 본래 유학 생각이 없었으나 더 좋은 자격을 갖추기 원하는 부모님이 먼저 유학을 권유했다. 외국에서 공부하면 외국 학위를 취득하고 외국어도 배울 수 있으니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전에 다녔던 직장보다는 훨씬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이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은 졸업 후 또 다른 진로 계획으로 베트남에 돌아가 전공과 관련된 회사를 설립하고자 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일을 하면서 자본을 쌓은 다음에 베트남에 가서 개인 사업을 준비할 수 있어요. (중략) 저의 꿈은 저의 전공과 관련된 회사를 설립하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중략) 제가 사장이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학위가 있는 사람들은 고용주같은 자리에서 더 많이 일하고 싶어 하잖아요.



박사 끝난 다음에 강의하는 것은 가장 적절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 참여자 9)

연구 참여자 9는 인터뷰 당시 다른 연구 참여자들과 같은 A대학교에서 석, 박사학위를 수여한 후 전공과 관련된 국내 한 기업에서 약 1년째 근무 중이었다. 연구 참여자 9의 최종적 진로 계획은 전공과 관련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2~3년 근무한 후 베트남에 돌아간 다음 자신의 실력과 자본이 어느 정도 쌓이면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연구 참여자 9가 회사를 설립하고자하는 이유는 박사학위와 같은 학력 자본이나 인정받는 사회적 지위를 얻은 사람에게는 고용주와 같은 직책이 어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 9는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베트남에 돌아가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경력을 더욱 쌓고자 했다. 그 계획 중의 하나가 대학 강사가 되는 것이다. 대학 강사 또한 박사학위를 수여한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연구 활동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직업을 갖고자 했다.

이상으로 연구 참여자의 졸업 후 진로 계획을 정리해 볼 때,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 강사직 혹은 연구직에 종사하기를 계획하고 있었다. 더불어 전공과 관련된 일반 회사나 한국계 기업으로 취업하거나 전공과 관련된 자회사 설립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있었다. 이들은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을 통해 앞서 선행연구(박소진, 2013; Hoare, 2012)에서 언급된 것처럼 유학을 두 번째 기회로 활용하고자 했으며, 이는 연구보조원으로 소속되어 있지 않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 1.2 한국 유학 이후 이동 방향에 관한 전망

유학생은 유학을 마친 후 다양한 이유로 이동한다. 본국으로 귀국하거나 유학 국가에 체류하거나 혹은 또 다른 국가로 이동한다. 이러한 결정은 개인적 이유이기도 하고 환경적 이유이기도 하다. 연구 참여자들 역시 다양한 개인적, 환경적 이유로 귀국을 계획하거나 한국에 좀 더 머무르기도 했고, 혹은 또 다른 국가로의 이동을 고려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졸업 후 이동 방향을 대해 귀국, 체류, 이동을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따라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귀국에 관한 전망은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었다.

먼저 본국으로 귀국하는 개인적 요인은 본국에 있는 가족과의 관계, 자녀 교육 문제, 베트남인으로서의 정체성, 고국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 등이었다.

가족 관계는 유학생이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는 데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정보 통신이 발달된 환경 속에서 어렵지 않게 본국의 가족, 지인들과 자주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었다. 특히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서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가족, 지인들과 연락이 가능한 최고의 수단이었다.

“그냥 가족과 떨어지는 시간은 5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더 떨어지면 안 좋아요. (연구자: 가족 많이 보고 싶으세요?) 네. (연구자: 그럼 어떻게, 주로 언제 보고 싶어요?) 낮에는 그냥 연구 일에 바쁘니까 괜찮은데 저녁때는 시간이 있을 때 좀 가족이 그리워요. 왜냐하면 저녁때는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이라 좀 그리워요.

학교에 갈 때 부모님이 저를 데리고 갔어요.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었고, 대학교 입시시험 봤을 때도 부모님의 추천으로 갔어요. 모든 일은 부모님

이 다 결정해줬어요.” (연구 참여자 6)

연구 참여자 6의 인터뷰에 따르면, 연구 참여자 6은 매일 본국에 있는 언니와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다. 가족들과 연락하는 것은 타지에서 홀로 지내는 연구 참여자 6에게 큰 힘이 된다. 연구 참여자 6에게 가족은 모든 것을 결정할 때 많은 영향을 주는 조언자이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조언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해왔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 6은 졸업 후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 곧바로 본국에 돌아가고자 했다.

결혼과 자녀 문제 또한 이동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개인적 요인이다. 결혼을 했거나 자녀가 있을 경우에 연구 참여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사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아직 확실하지 않는데 제가 학업을 다 마치면 제 자녀는 아마 초등학교 1학년일 거예요. 그 때는 베트남에서 교육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박사과정 끝난 다음에 베트남으로 돌아갈 거예요. (중략) 저는 자식은 베트남에서 교육시키고 싶어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공부시키면 베트남어를 다 까먹을 거 같아서요. (중략) 자식은 베트남에서 꼭 공부시키고 싶어요. 나중에 성장하면 외국에 보낼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베트남에서 공부시키고 싶어요.” (연구 참여자 7)

연구 참여자 7은 결혼을 했고 아내는 현재 베트남에서 살고 있다. 아직 자녀는 없었지만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7은 석사과정을 마치면 박사과정에 진학해 현재 연구실에서 연구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그 때는 베트남에 있는 아내도 한국에 와서 함께 생활 할 계획이다. 연구 참여자 7의 아내는 한국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어 한국어를 잘 구사하기 때문에 한국에 오면 바로 구직 활동을 하고자 한

다. 둘 다 현대적인 생활을 좋아하기 때문에 박사과정을 마칠 때까지 한국에서 지내려고 계획하지만, 자녀에게 베트남어를 가르치기 위해 언젠가는 반드시 베트남으로 돌아갈 계획이다.

한편, 베트남인으로서의 정체성 또한 이들이 베트남에 돌아가고자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저의 경우에는 외국에 나가면 전 외국인이에요. 하지만 전 실제로 베트남인이죠. 저는 저의 나라에서 일하고, 살고 싶어요. 한국 사람들과는 달라요. 예를 들어, 제 연구실의 한 동료는 미국에 가기 원해요. 아기가 크면 그 아이는 미국인으로 키울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전 저의 아이를 미국인, 한국인, 호주사람처럼 키우고 싶지 않아요. 제가 베트남인이면 저의 아이도 역시 베트남인이죠. 만약에 제가 졸업해서 한국에서 좋은 직업을 얻고, 높은 월급을 받고, 좋은 곳에 살아도… 그게 좋은 생활이라고 해도 실제로 좋은 삶은 아니에요.” (연구 참여자 4)

연구 참여자 4는 자신이 베트남인이기 때문에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다. 한국에 머무르면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겠지만 타국에서 외국인으로 살고 싶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곧 태어날 자녀는 반드시 베트남인으로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국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 또한 본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 활동을 통해 배운 선진 기술을 졸업 후 본국에 돌아가 나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 있게 여기고 있었다.

“저는 가족하고 민족한테 어떤 기여… 어떤 사업을 하고 민족한테 기여하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연구 참여자 9)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 참여자 9와 같이 자신이 배운 기술을 통해 본국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는데, 위와 같은 사례는 1990년도 초반에 미국 유학 한국 과학자들에게 있어 고국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 같은 심리적 요인이 귀국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한 연구 결과와 비슷한 맥락이다(진미석, 2007: 277).

한국 유학 베트남 이공계 유학생이 졸업 후 귀국하는 환경적 요인은 본국에서 일자리가 정해져 있는 것, 한국에서의 언어적 제약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언어적 제약은 연구 참여자들이 한국에서 겪는 어려움 중 하나이다. 본래 인터뷰 시작 전에는 이공계 학생이 주로 영어로 의사소통하기 때문에 취업에 있어 언어적 제약이 덜 할 것으로 여겨졌으나, 인터뷰 결과 언어 문제는 한국에 정착하기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한국에서 교수가 되면 한국어로 가르쳐야 하잖아요. 한국어를 사용해야 해요. 하지만 만약에 연구를 하는 것이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연구는 연구 활동만 하면 되잖아요. 한국에서 교수가 되는 것은, 저에게는 불가능해요.” (연구 참여자 10)

연구 참여자 10은 현재 A대학교를 졸업한 후 같은 연구실에서 박사 후 과정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연구 참여자 10의 최종적 취업 목표는 대학 교수자가 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 10은 한국의 연구 환경에 대해 다양한 지원 제도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앞으로 교수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이 점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 10은 한국에 정착할 계획이 없다. 단순히 연구 활동만 지속하는 것이라면 영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누군가를 가르치는 교수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작 한국어 실력을 다시 쌓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 10은 한국에 오랫동안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 생활에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어 한국어로 의사소통 하는 것이 아직 불편해 보였다. 이러한 언어적 제약은 연구 참여자 10을 본국보다 나은 연구 환경에도 불구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거나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만들고 있었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에서 좀 더 체류하고자 하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개인적인 요인으로는 한국에서의 동료들 간의 관계, 오랜 거주 기간 등이었다. 유학 국가에 거주하면서 형성되는 사회적 네트워크나 오랜 거주 기간은 이들을 한국에 머물게 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했다.

“저를 박사과정까지 도와주신 교수님 은혜를 갚으려고 포스닥을 한국에서 하고 싶어요. (중략) 지금 저의 지도교수님은 세계 가장 최우수 연구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top10 속에 들어가는 데 그 교수님은 A대에 계시니까 제가 A대에 들어왔어요. (중략)” (연구 참여자 5)

“원래 연구실 있었을 때는 그 회사와 관련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중략) 졸업하기 전에 한 1년 정도 아르바이트를 그 회사에서 했었어요. 프로젝트를 하면서 아르바이트 경험을 했었죠. (중략) 저는 한국에서 공부해서 한국 문화하고 한국 사람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일하는 것은 저에게 기회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경험을 많이 쌓았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절차를 해결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연구 참여자 9)

연구 참여자 5의 사례를 통해 이들이 한국에서 학업을 연장할 때 교수자와의 관계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 참여자 5는 자신이

배우고 싶은 지도교수를 따라 한국에 왔고, 지도교수의 보살핌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더불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학업 연장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9는 한국에서 석, 박사과정을 마친 후 한국 회사에서 약 1년째 재직 중이다. 졸업 전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1년 동안 한 회사에서 실무를 경험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 좋은 관계가 유지되면서 졸업 후 다시 지도교수의 추천에 따라 한국에 취업하게 되었다. 당시 유럽에 가서 박사 후 과정 연구원이 되고 싶었던 계획이 있었지만 한국에서 일하면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이미 한국 문화에 대해 익숙해졌기 때문에 한국 체류를 선택했다. 그의 인터뷰에 따르면, “만약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면 적응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것을 택했다”고 말한다.

다음으로 베트남 이공계 유학생이 국내 체류하는 환경적 요인은 높은 임금, 발전된 환경 등이었다. 베트남 이공계 유학생에게 있어 한국은 기술 발전, 전문적인 연구 환경을 제공하는 곳이었고, 이는 베트남 이공계 유학생이 유학 국가에 체류하고자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본국과 비교해 전문적인 연구 환경과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에 만족하며 일정 기간 한국 회사에 취업함으로써 더 많은 실무 경험을 쌓고자 했다.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공부하면서 한국의 정보관리 시스템을 알아보고 싶고, 사실은 한국 회사에서 한 번 일 해보고 싶어요. 경험을 더 많이 쌓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관리 시스템 같은 거 더 배우고 싶고 베트남에 가서 적용하면 좋을 거 같다고 생각해요. (중략) 한 2-3년 정도 한국에서 일하면 좋겠어요. (중략) 2-3년이라는 기간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과정을 거의 다 공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2-3년은 어느 정도 돈도 벌

수 있어요.” (연구 참여자 1)

“저는 한국에 와서 좋은 실험기기를 통해 연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생활의 환경도 좋고 안정적이에요. 베트남 생활에 비교하면 엄청나게 좋아요. 베트남에서의 생활을 생각하면 가끔 좀 섭섭해요.” (연구 참여자 5)

실제로 연구 참여자 1과 5는 졸업 후 한국에 일정 기간 머무르면서 일자리를 찾고자 했는데, 특히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혹은 박사 후 과정과 같은 연구직 혹은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었다. 이는 본국보다 발전된 기술을 직접 응용하고 그 동안 자신이 쌓았던 실력을 검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국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유학의 핵심 동기가 학문과 기술의 수준 차이임을 고려할 때, 본국보다 앞선 기술을 습득하면 앞으로 본인의 능력을 계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진로 선택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홍성민 등(2012)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홍성민 외, 2012: 11).

셋째, 베트남 이공계 유학생이 제 3국으로 이동하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개인적 요인으로는 어학 실력 향상, 개인적 목표 성취 등이었다.

“만약에 가면 호주로 가고 싶어요. 베트남 사람들은 미국이나 호주나 싱가포르에 많이 유학 가요. 호주에 가면 영어를 얘기할 수 있어서 호주로 가면 영어로 의사소통 더 좋고...” (연구 참여자 1)

“저는 저의 일을 베트남에서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디에서든지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가족과는 가까운 거리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이면 좋아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같은 곳은 집에서 가까워요. 만약에 거기에서 직업을 얻을 수 있으면 거기로 갈 거예요. 제한하지 않아요.” (연구 참여자 10)

연구 참여자 1은 졸업 후 박사과정에 진학하고자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나라는 정하지 못했다. 본국과 한국 외에 제 3국으로의 이동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만약 가게 된다면 호주로 가고 싶어 했다. 호주에 가면 영어를 더욱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영어는 자신의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권 국가에서 지금보다 더 어학능력을 갖추고자 했다.

앞서 언급되었던 연구 참여자 10은 언어의 제약으로 국내 정착 계획은 없지만 원하는 직업을 얻을 수만 있다면 다른 국가에 정착할 계획도 세우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10은 우선적으로 본국에 돌아가고자 하지만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만 있다면 제 3국에 정착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제 3국은 의사소통이 가능한 영어권 국가이면서, 가족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아시아 지역을 선호했고 조건이 맞다면 그곳에서 정착할 기회를 열어두고 있었다.

이동을 계획하는 환경적 요인은 한국에서 체류하고 싶은 이유와 비슷했다. 이들을 이동하게 하는 가장 주된 요인은 전문화된 연구 환경,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등이었다. 더불어 이동하고자 하는 지역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주로 미국, 유럽 지역이나 싱가포르 등의 영어권 국가였는데, 영어권 국가에서는 의사소통이 좀 더 원활하고 일을 하면서 영어를 배울 수 있고 한국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국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유럽이면 좋겠고... 왜냐면 유럽은 베트남보다 일하는 환경이 더 좋아요. 그리고 유럽의 환경은 한국이랑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연구 참여자 8)

연구 참여자 8은 졸업 후에 한국에서 일하거나 유럽에 가고자 한다. 최종적으로 원하는 진로 계획은 베트남의 대학교에서 연구원이 되는 것인데 그 전에 본국보다 더 발전한 나라에서 좀 더 많은 경력을 쌓고 싶기 때문이다. 졸업 후 계획을 아직 확실하게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연구원으로 지원한다면 연구 환경이 발전한 유럽 지역을 희망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 이동하고자 하는 제 3국의 선호도를 고려할 때, 미국, 유럽 지역은 유학생들에게 여전히 주요 유학지임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아시아 내에서는 싱가포르와 같은 영어권 국가를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한국 체류 이후 전망을 정리해 볼 때, 이들이 졸업 후 귀국, 체류, 또는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 환경적 요인들이 다양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귀국에 있어서는 가족 관계, 자녀 교육, 베트남인으로서의 정체성 혹은 사회적 책임감 등의 개인적인 요인 뿐 아니라 언어의 제약, 이미 일자리가 정해져 있는 상황 등 환경적인 요인이 뒤따랐다. 체류 및 이동에 있어서는 한국에 오래 거주하면서 형성된 동료 관계, 문화 적응의 개인적 요인과 본국보다 높은 임금, 발전된 환경 등 환경적 요인이 뒤따랐다.

더불어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과 제 3국에서 취업을 하게 될 경우에도 역시 연구직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제 3국으로의 이동에 관해서는 영어권 지역이나 베트남과 인접한 동남아시아 지역을 고려했다. 또한 이들이 한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체류를 원하는 기간은 대체적으로 1~3년 정도였는데 이는 허재준 등(201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1~3년은 그 동안 배운 것을 적용하는데 적합한 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즉, 연구 참여자들은 졸업 후 단기간 한국에서 체류하거나 제 3국으로 이동하여 커리어를 쌓은 후 궁극적으로는 본국에 돌아가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다.

## 2. 좋은 자격 갖추기

대학 강사 및 연구직을 선호하는 베트남 이공계 유학생의 진로 활동은 크게 학업·연구 활동에 집중, 전공과 관련된 실무 경험, 정보 수집 등으로 나타났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상위 과정 진학, 외국 학위 수여, 연구 실적 쌓기 등으로 준비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진로 활동이 일어나는 연구실 환경은 교수·동료와의 관계, 학업을 열중하게 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둘째, 전공과 관련된 실무 경험은 한국 기업에 취업, 인턴십 등이었으며, 이를 위해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은 지도교수나 연구실 동료, 본국의 동료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함으로써 구직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국내 청년들이 취업난으로 인해 뚜렷한 목표의식보다는 다양한 ‘스펙 쌓기’ 활동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때, 베트남 이공계 유학생은 비교적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들의 진로 활동인 학업·연구 활동에 집중, 실무 경험 등은 이들에게 가장 좋은 자격 요건이 되었다.

### 2.1 학업·연구에 집중: 연구 실적은 나의 이력

연구 참여자들의 가장 우선적인 진로 활동은 학업과 연구에 집중하는 것이었다. 학위 취득과 우수한 연구 실적은 대학 강사 혹은 연구직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가장 좋은 이력서가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연구 참여자들은 상위 과정 진학, 외국 학위 수여, 연구 실적 등을 통해 진로를 준비하고 있었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 학위과정을 마친 후 상위 과정에 진학하고자 했다.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학생을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드러나지 않았다.

석사과정 학생은 박사과정을 언제, 어디에서 할지에 대해서 고민했지만 진학 계획은 변함이 없었다. 그리고 몇몇 석사과정 학생 및 박사과정 학생들은 박사 후 과정 진학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다. 이는 대부분의 이공계 학생들이 석, 박사과정을 마친 후 박사 후 과정 절차를 밟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임을 고려할 때 베트남 이공계 유학생도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직급을 평가하는 거예요. 계급이 높을수록 월급이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보조원이면 그냥 혼자서 하는 강의를 직접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보조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강사로 하는 거고, 위에는 주임 강사로 될 수 있어요. 강사는 그냥 수업을 할 수 있고 주임강사는 지도교수처럼 학생을 지도할 수 있고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월급의 차이예요. 그리고 매년 그런 평가 있어요. 직급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평가 있고…” (연구 참여자 1)

앞서 언급되었던 연구 참여자 1은 박사과정에 진학할 계획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나라는 정하기 못했다. 만약 결혼하지 않았다면 현재의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에 진학하고 싶지만 가족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기 어려워 고민하는 중이었다. 연구 참여자 1을 제외한 다른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한국에서 박사과정에 진학하고자 했다.

“처음 여기에 오기 전에는 공부를 끝내고 베트남에 가서 다시 일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약간 바꿨어요. 계속 포스닥까지 공부할 계획이에요. (중략) 베트남에서는 연구를 지원하는 제도가 없어요. 박사학위를 받고 계속 연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연구 참여자 5)

박사과정인 연구 참여자 5는 졸업 후 박사 후 과정에 지원할 생각이다. 즐

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한국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한국에서의 만족스러운 연구 환경 덕분에 박사 후 과정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일정 기간 동안 연구원으로 지내고자 계획을 변경했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외국 학위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더욱 높이하고자 했다. 한국 학생이 해외 학위 취득을 통해 고용 시장에서 유리한 기회를 얻는 것처럼 베트남 학생이 한국에서 받은 학위는 외국 학위로써 베트남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연구 참여자 8은 한국에서 학위를 수여하면 본국에 돌아가서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한국 학위가 있으면 좋은 자리에 취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학교에 가려면 연구를 관리하는 자리로 갈 수 있어요. 외국에서 공부하면 페이퍼에 집중할 수 있어 논문의 질도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중략) 그래서 베트남에 가서 좋은 자리를 찾을 수 있어요.” (연구 참여자 8)

연구 참여자 8은 유학을 오기 전 연구보조원으로 지원할 기회가 있었지만 지원 시기가 맞지 않아 신청하지 못했다. 하지만 연구보조원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선진 기술을 배우며 한국 학위를 수여하고 다시 베트남에 돌아간다면 본국에서의 학위보다 더 많은 인정을 받아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본국보다 발전된 나라의 학위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우대 받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나라에서 받은 학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한다. 마찬가지로 베트남보다 발전된 나라에서 수여한 학위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우대 받을 수 있다.

“만약에 제가 베트남보다 더 좋은 나라에서 교육을 받으면 사람들이 저

의 능력을 인정해줘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도, 예들 들어, 미국 대학하고 서울 대학에서 졸업한 사람 비교하면 서울 대학교에서 졸업한 사람이 더 잘 할 수 있잖아요. (중략) 꼭 미국에서 유학하면 잘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다 미국에서 유학하고 오면 다 잘한다고 생각해요. 베트남 사람들도 그래요. 만약에 외국에서 공부해오면 그렇게 생각해요. 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연구 참여자 4)

연구 참여자 4는 베트남에서 본국보다 발전된 나라의 학위가 있으면 우수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한국 학위가 베트남에 돌아가서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말한다. 베트남 이공계 유학생은 자신의 한국 학위가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가서 일자리를 구할 때 다른 이들보다 유리한 역할을 할 것이라 여기고 있었다. 현재도 연구보조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연구 참여자들은 본국에서 석, 박사학위를 수여해도 정식 강사가 될 수 있지만 다른 이들보다 더 좋은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한국 유학을 선택했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은 각자의 연구실에서 많은 연구 실적을 쌓고자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연구직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연구 실적이란 곧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이력서와 같다.

“좋은 성적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연구자: 좋은 성과요?) 많은 페이퍼를 낼 수 있는 그런 성과요. 좋은 페이퍼가 있다면 베트남의 학교나 회사에 제 능력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나중에 면접 볼 때, 그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로 저를 평가하겠어요? 제 CV를 보겠죠. (중략) 제가 많은 실적이 있다면 그들이 제 이력서를 읽을 때, ‘아... 좋은 강사구나,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저를 필요로 하겠죠. 하지만 제가 실적이 없다면 그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연구 참여자 6)

연구 참여자 6은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연구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연구 실적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후에 자신이 지원할 회사에서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은 이력서가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에서의 연구 실적이 그 동안 어떻게 학업을 지속해 왔는지, 어떤 연구들을 진행했는지가 앞으로 자신의 이력을 나타내는 데 핵심적이기 때문에 연구 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 2.2 실무 경험: 이론 위주에서의 탈피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자로서 더 좋은 자격을 갖추기 위해 더 많은 경험을 쌓고자 했다. 때문에 한국에 체류하거나 제 3국으로 이동함으로써 실무 경험을 쌓고자 했다.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서 졸업 후 한국 회사에 취업하거나 인턴십 기회를 활용했다. 또한 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기회를 얻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자 했다.

“대학 강사는 그냥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강사도 수업을 하면서 기업에 관련된 프로젝트나 다른 연구도 많이 해야 되요. 기업에 관련된 프로젝트나 다른 프로젝트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많은 경험을 쌓으면 좋을 거 같은데요.” (연구 참여자 1)

연구 참여자 1은 졸업 후 기회가 된다면 한국 회사에서 경험을 쌓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연구 참여자 1이 이렇게 한국 회사를 경험하고 싶은 구체적인 이유는 베트남에 돌아가서 강사가 되려면 이론적 지식 이외에 실무에 필요한 실무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한국 회사로의 취업을 준비하는 또 다른 이유는 베트남의 학업 환

경과도 연결되어 있다. 인터뷰에 따르면, 연구 참여자들은 본국에서 주로 오래된 지식이나 이론을 중심으로 배웠기 때문에 현장을 경험할 기회를 거의 접하지 못했다고 한다. 실무를 위해서는 이론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야 하지만 그 동안의 환경은 현장을 알기에 부족한 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론적인 것만 배우고 실험이나 일하는 경험은 많이 못해봤어요. 그것은 베트남에서 공부하는 약점이라고 생각해요.” (연구 참여자 3)

“베트남에 있을 때 교수님이 실제 산업에 대해서 아무 것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경험이 없으셨죠. 그래서 학생들도 실무 경험이 전혀 없었어요. 막상 회사에 가면 아무것도 몰라서 너무 힘들었어요.” (연구 참여자 10)

연구 참여자 3은 베트남에서 이론 중심적인 학업 환경 탓에 실무 경험을 많이 쌓지 못했다고 말한다. 연구 참여자 10은 교수자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 중의 하나로 실무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베트남에서는 주로 이론 위주의 학업 분위기인지라 더 많은 경험을 쌓기 위해 유학을 선택했다. 연구 참여자 10은 자신의 친구들이 학교에서는 이론을 위주로 배우다가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현장 경험이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았다. 때문에 나중에 교수자가 되면 학생들에게 학교 밖의 현장 경험을 많이 알려 주고 싶어 한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에서의 취업을 위해 인턴십 기회를 활용하기도 했다. 인턴십 경험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도움이 된다. 연구 참여자 1과 2는 지난 겨울방학 동안 한 중소기업에서 인턴십을 경험했다. 전공에 관련된 일을 배우면서 실무 경험도 쌓고 업무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었다.



“지난 방학 때는 미니로봇 회사에서 인턴십을 했어요. 거기에서 처음에는 그 회사의 분위기를 파악했고, 그리고 로봇에 관련된 프로그램도 만들어졌어요. 로봇은 인사하고 베트남 춤을 출 수 있게끔 설정했어요. 연구 참여자 1하고 같이 했었고, 이번 여름 방학에도 그 회사에 가서 또 계속하고 싶어요. (중략) 인턴십을 통해서 일에 대한 경험도 많이 하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일하는 습관을 배울 수 있어요. (연구자: 어떤 습관이요?) 책임감 있고, 시간을 잘 맞추고, 그러는 거요. 그리고 빨리빨리 하는 그런 습관을 배울 수 있어요.” (연구 참여자 2)

연구 참여자 1과 2가 인턴십이 가능했던 이유는 인터뷰 당시 ‘Global IT’ 장학금을 수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Global IT’ 장학금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을 통해 국내 정보통신 관련 기업들이 IT관련 분야를 전공으로 하는 유학생을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이 제도를 통해 유학생들은 장학금 수혜와 함께 정보통신 분야의 중소기업에서 인턴십 경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턴십을 한 학생들에게는 졸업 후에 인턴십을 했던 회사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연구 참여자들은 인턴십을 통해 한국 회사를 경험하는 것뿐 아니라, 한국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정보를 구하고 한국어도 공부했다. 연구 참여자 1은 인턴십 뿐 아니라, 같은 연구실 선배의 소개로 한국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다. 하지만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공부 중이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원래 선배의 추천으로 공부하면서 알바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알바하려면 한국어 능력 자격증도 준비해야 되고, 전공분야에 관련된 내용도 준비해야 되는 것이라서 지금 한국어를 공부하고, 전공은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연구자: 그 알바가 무슨 알바예요?) 전공에 관련된 일이에요. 음성이나 사진에 관련된 작업인데

한국어를 아는 사람만 받는대요. (연구자: 만약 하게 되면 언제쯤 할 수 있어요?) 다음 학기에 만약에 한국어를 공부 잘 되면 다음 학기 정도에 하려고 해요.” (연구 참여자 1)

인턴십과 한국 회사에서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학업을 진행하면서 한국 회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보다 한국 회사에 대해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고, 졸업 후 한국에서 직장을 구하는 데 있어 다른 학생들보다 유리하다. 실제로 연구 참여자 1은 인턴십을 하면서 더 한국 회사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또 다른 기회를 얻고자 학업과 한국어 공부에 집중했다. 재학 중에 한국 기업을 경험하는 기회가 다른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았고, 이로 인해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하려는 의사가 높아진 것이다. 이러한 점은 유학생이 학업 중에 겪는 긍정적 취업 경험은 졸업 후 유학 국가에서의 취업 의사를 높인다는 허재준 등(2011)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한편, 국내 이공계 학생들의 진로 준비에서 성별 차이에 관한 연구가 많았음을 고려할 때, 외국인 유학생에게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 2.3 정보 수집: 동료들과의 관계 활용

정보 수집은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필수적인 진로 활동이다. 국내 대학생은 주변 지인들의 소개나 인터넷 및 기사를 통한 정보 수집, 세미나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취업 준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진로를 준비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주로 주변 관계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했다. 이들은 주로 연구실 동료나 지도교수 등을 통해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고 있

었다. 주변 관계를 활용한 정보 수집은 졸업 후 이동 방향과 관계없이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졸업 후 자신이 선택하게 될 직업 분야와 관련된 사람들과 계속하여 연락하고 있었다.

“현재는 호치민에 있는 친구하고 연락하고 있어요. 호치민 대학 강사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계속 연락하고 베트남의 일하는 환경은 어떤지 계속 정보를 주고받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베트남에 가면 아마 좋은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연구 참여자 9)

연구 참여자 9는 전공과 관련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꿈이지만, 돌아가면 우선적으로 대학 강사직에 지원할 계획이다. 때문에 현재 베트남에서 대학 강사로 재직 중인 친구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관련된 정보를 얻고 있었다.

대학원생의 학업 활동은 학부생에 비해 학업보다는 주로 연구 활동이 많으며, 이와 관련된 학술대회, 연구모임 등이 활발하다. 공통 관심사를 가진 연구자들과의 만남은 자신의 진로에 관하여 질적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보통 연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각자 관련된 커뮤니티가 있어요. 연구기관 커뮤니티, 학과 모임 같은 모임이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관계를 이용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직업도 찾을 수 있어요. 모임에서 정보를 얻는 거예요. (중략) 저의 생각에는 그 방법이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보통 포럼, 학회에 가요. 필요한 모든 정보는 포럼에서 얻을 수 있어요.” (연구 참여자 10)

연구 참여자 10은 교수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연구 분야 내 학술대회, 포럼 등에 자주 참석해 많은 사람을 만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한국에서의 취업을 원하는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주변의 정보를 통해 일자리를 얻고자 했다. 주로 지도교수와 연구실 동료들에게 조언을 구하며 정보를 얻고자 했다.

“친구 혹은 교수님을 통해서 정보를 찾을 거예요. 교수님한테 정보를 물으면 교수님은 여러 가지 정보를 주시고 추천서를 주시면 일을 더 빨리 찾을 수 있는 거 같아요.” (연구 참여자 8)

연구 참여자 8은 졸업 후 한국 회사의 시스템 및 업무 환경을 경험하고 싶어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도교수나 연구실 동료들에게 도움을 얻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 말한다.

실제로 한국에서 취업한 연구 참여자 9와 연구 참여자 10도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한국에서 일을 시작했다. 지도교수는 이들이 일자리를 얻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 3. 희망과 현실 사이의 딜레마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유학 국가에서의 취업 준비에 있어서 언어적 제약, 정보 선택의 제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수반되기도 한다. 국내 베트남 이공계 유학생에게는 취업을 준비하는데 언어적 제약, 체류의지 부족 등이 주된 진로 장애 요인으로 여겨졌다. 더불어 진로 정보의 결여 등도 차후 한국에서의 체류를 어렵게 하는 점이었다.

### 3.1 언어적 제약: 수업은 영어, 취업은 한국어

언어적 제약은 유학생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취업하기란 실제로 쉽지 않은 일이다. 본 연구는 영어로 된 전문기술용어의 사용이 많은 이공계 학생이 언어적 제약이 적을 것이라고 간주하였다. 하지만 베트남 이공계 유학생도 국내 취업을 위한 진로 활동에서 언어적 제약으로 인해 나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안에서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 큰 문제가 없지만, 학교 밖에서는 한국어로 의사소통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수업 과정을 살펴보면, 전공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유학생을 위해 영어 수업을 개설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수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들이 수업을 따라가는 방법 중 하나는 영어 강의를 수강하는 것이다.

“만약에 영어로 강의하면 알아듣고 그리고 만약에 듣지 못하면 맞출 수 있어요. 근데 한국어를 지금 잘 모르고 만약에 들어도 추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 선택하면 더 좋아요.” (연구 참여자 6)

연구 참여자 6은 영어 수업을 수강하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추측을 통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지만, 한국어 수업은 조금만 내용을 모르면 전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영어 수업만 수강하고 있었다.

반대로 연구 참여자들이 한국어 수업을 수강할 때에는 영어로 된 강의 자료를 읽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면서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번 학기에는 한국어로 한 과목을 청했더니 좀 힘들었어요. 한국어 하나도 모르는데 교수님이 쓸 때는 영어로 쓰셨지만 설명은 한국말로 하시

니까 설명하는 거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연구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대부분은 제가 집에 가서 강의 자료를 읽어요. 다행히 강의 자료는 다 영어로 하니까 괜찮아요.” (연구 참여자 5)

연구 참여자 5는 처음으로 한국어 강의를 수강했을 때, 한국어 내용이 이해되지 않아 영어 강의 자료를 읽으면서 수업에 참여했다고 이야기했다. 한국어 수업을 따라가기 위한 이러한 대처는 다른 연구 참여자들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영어 강의 자료나 전공과 관련된 공식 등을 확인하면서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에서 따르는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수업에서 강의 자료 등은 대부분이 영어이고 대학원에서는 수업보다는 연구 활동을 중심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은 수업에서의 언어적 제약이 매우 큰 어려움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정작 한국에서 취업하려면 상황이 달라진다. 한국 회사 안에서는 한국어로 의사소통하기 때문에 한국어가 원활하지 못하면 업무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연구실하고 수업에서 그냥 영어로 대화 할 수 있는데... 회사에 들어가서, 큰 회사이면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이 많겠죠. 근데 중소기업에서는 영어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만약에 업무에 관련된 일을 의논하고 싶으면 제 3자한테 이메일을 주고받는 것으로 해야 하니까 약간 좀 그래요. (중략) 한국어를 알아야 그 회사의 요구는 어떻게 되는지 프로그램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어떤 오류가 되는지, 아니면 부족함이 있으면 회사 쪽도 설명해주고 도와주려면 다 한국말로 이해하면 더 빨리 좋아질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1)

“한국어 공부는 좀 어려운데 사실 보통 수업은 영어로 주로 진행되어 있

잡아요. 그래서 한국어를 연습하는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연구실에도 영어로 대화하고 그리고 한국어를 연습하는 환경을 만들지 못했어요.” (연구 참여자 2)

실제로 방학동안 한국 회사에서 인턴십을 한 연구 참여자 1과 2는 다른 학생들보다 이러한 상황을 더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1과 2는 지난 겨울방학에 한 중소기업에서 인턴십을 했었는데 주로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행히도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장님의 자녀를 통해 무리 없이 실습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영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이 사장님의 자녀밖에 없었던지라 다른 사람들과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다음 학기에 같은 회사에서 인턴십을 하고 싶었으나 정작 다음 학기에는 회사 사장님의 자녀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기 때문에 인턴십을 계속 할 수 있을지 고민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 안에서 주로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해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영어로 된 참고 자료를 읽고, 영어 강의를 수강하고, 동료들과 영어로 대화한다. 한국어를 배우기는 하지만 영어보다는 생활에서 쓰는 비중이 크지 않다. 실생활에서 영어를 더 많이 쓰는 만큼 한국어보다는 영어를 더 공부한다. 하지만 졸업 후 한국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작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한국 회사에서 일하려면 업무 내용도 알아야 하고 동료들과 업무 내용에 관해서도 대화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 3.2 정보 제한: 외국인 채용 기회 부족

한편, 한국에서의 취업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도 정보의 제한은 이들의

체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이다. 정보의 제한은 진로 활동을 하는데 있어 유학생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이다.

“여기서부터 어려운 점은 전공에 관련된 회사를 찾는 거예요. 일자리를 찾는 게 힘들어요. 꼭 자기가 전공하는 분야를 필요로 하는 회사가 거의 없는 거 같은데… 아니면 찾기가 힘들어요.” (연구 참여자 1)

“저는 아직 한국에서 취업한 경험도 없었지만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박사가 취업하는데 힘들다고 했어요. (중략) 예를 들면 회사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한테 월급을 더 많이 주어야 되는데 박사답게 연구하는 것도 별로 없어서 취업하는 거 쉽지는 않아요.” (연구 참여자 8)

연구 참여자 1은 연구자가 만났던 유학생 중 가장 취업 의사가 적극적인 학생이었다. 현재도 인턴십,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진로 활동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전공에 관련된 회사를 찾는 것이라고 말한다. 연구 참여자 8은 아무리 학위가 있어도 외국인이라는 점 때문에 한국에서 직장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채용이 된다면 바로 업무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외국인은 바로 업무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채용 기회가 별로 없을 것이라 말한다.

실제로 인터뷰에 따르면, 연구 참여자 1과 2를 제외한 연구 참여자들은 인턴십이나 전공과 관련된 업무 경험 기회를 전혀 접해본 적이 없었다.

외국인의 채용이 어려운 이유는 외국인을 잘 채용하지 않는 한국 기업의 문화도 이를 뒷받침한다. 강동관 등(2010)의 연구에 따르면, 2010년 한국기업을 상대로 향후 5년 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할 의사에 대해서는 평균 89%가 채용 예정이 없다고 답했다(강동관 외, 2010: 44). 실제로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 분야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공과 관련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울뿐더러 한국 학생들과도 경쟁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기회의 부족은 이들이 진로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 3.3 체류의지 부족: 이미 정해진 계획

연구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졸업 후 진로 전망에 관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본국에서 이미 직업이 결정된 학생들의 경우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의 하나로 한국 유학을 선택했다. 직업 정해져 있지 않은 학생들도 이전의 근무 경험을 통해 졸업 후 어떤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이 매우 뚜렷했다.

이는 본국에서의 취업에 대해서 이들이 진로 결정수준이 매우 높고 그에 따른 진로 준비 행동도 매우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취업계획에 대한 청사진이 뚜렷하며 불안감이 매우 낮다. 실제로 연구 참여자들은 본국에 돌아가 뚜렷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취업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고 있었는데, 한국 사회에서 학생들이 취업에 불안감을 느끼고 많은 스펙을 쌓는 현상을 보이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하지만 한국 또는 제 3국에서의 진로 계획에 대해서는 진로 계획이나 활동도 낮은 편에 속했다. 그 이유는 한국이나 다른 국가에 취업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본국에서의 진로 계획이 더 뚜렷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베트남에서 연구보조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학생에게서 더욱 찾아 볼 수 있었다.

“졸업한 뒤에는 베트남에서의 학교가 뽑아 주니까... 계속 학교에서 일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베트남에 가서 학교에서 일을 할 거니까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연구 참여자 4)

베트남에서 연구보조원으로 있었던 연구 참여자 4는 졸업 후 바로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꼭 본국에 돌아가고자 하는 이유도 있지만, 본국에서 이미 직업이 있었고 돌아가서도 본래 다니던 학교로 돌아갈 계획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기회가 된다면 졸업 후에 한국이나 제 3국에서 박사 후 과정으로 지원할 수 있겠지만 이미 자신의 일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진로를 준비하는 등의 활동은 꼭 필요하지 않다고 여겼다.

연구 참여자들이 적극적인 체류 의사를 보이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모든 석사과정 학생들이 박사과정에 진학 할 계획임을 고려할 때, 강사 및 연구자가 되기 위한 우선적인 취업 준비로 상위 과정 진학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또한 소수의 경우 한국에 온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 학생들은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지는 않는 것처럼 보였다. 이들은 현재 졸업 후 자신의 미래에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고 있다기보다 현재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연구실 동료들과의 관계나 자신의 프로젝트 등에 집중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결론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취업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한국어를 새롭게 배워야 한다는 어려움과 정보의 제한, 체류의지 부족으로 한국 취업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한국에서의 체류의지 부족의 원인으로는 본국에서의 진로 계획이 매우 뚜렷한 것에 비해 한국에서의 진로 계획과 준비가 비교적 명확하지 않다는 점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 베트남 이공계 유학생의 사례를 들어 이들이 졸업 후 어떤 진로를 계획하고 있는지와 이를 위해 어떤 준비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유학을 통한 베트남 이공계 유학생의 졸업 후 계획은 진로에 대한 전망과 이동 방향에 대한 전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먼저 진로에 대한 전망은 본국으로 돌아가 정식 대학 강사가 되거나, 전공과 관련된 일반 회사 또는 한국계 기업으로의 취업이었다. 또한 전공과 관련된 회사 설립 등과 같은 계획도 세우고 있었다. 궁극적으로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 강사 및 연구직과 관련된 직종을 선호하고 있었다.

홍성민 등(2012)에 따르면, 대부분의 이공계 유학생은 대학 교수 및 연구직을 희망하고 있으며 연구직에 취업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대학으로의 이직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졸업 후 연구 경력은 대학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라고 말하고 있는데 본 연구 또한 이러한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경우 대부분 한국에 오기 전 본국의 대학교에서 연구보조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이 있거나 일반 회사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었다. 그 중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도 본국의 대학교에서 연구보조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다. 현재도 연구보조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 유학을 통해 더 많은 커리어를 쌓아 기존의 직업을 계속 이어가고자 했고, 그렇지 않은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 유학을 통해 앞으로 고용 시장에서 더 폭 넓은 선택의 권한을 갖고자 했다. 앞서 Hoare(2012)의 연구에서 많은 학생들이 국제적 교육을 통해 두 번째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처럼 이들 역시 한국 유학을 통해 더 좋은 직업을 얻기를 기대하고 있었고, 한국

유학은 이들에게 두 번째 기회로 작용하고 있었다. 유학 국가에서 습득한 선진 기술은 본국에 돌아가 대학 강사 및 연구직에 종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고용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자본의 하나로 작용했다.

다음으로 유학 후 이동 방향에 관한 전망은 귀국, 체류, 이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는데 이동 방향에 대해서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이 뒤따랐다.

귀국을 원하는 개인적 이유는 가족과의 관계, 자녀 교육 문제, 베트남인으로서의 정체성, 고국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 등 이었다. 반면에 귀국을 하게 되는 환경적 이유는 본국에서의 일자리가 정해져 있거나 한국에서 겪는 언어적 제약 등이 그 요인으로 뒤따랐다.

국내 베트남 이공계 유학생이 한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계획에도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작용했다.

개인적 요인으로 한국에서의 교수, 동료들과의 네트워크나 오랜 거주 기간은 이들이 졸업 후 체류하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교수자 및 동료 관계는 외국인 학생이 대학 생활 적응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전재은·장나영, 2010: 306). 또한 대학원생의 유치 및 재정적 지원은 교수자들의 역할과 결정이 중요하다(엄미정 외, 2012: 98).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가 한국에서 일하는 경우 지도교수 및 한국 회사와의 긍정적인 관계, 오랜 거주 기간으로 인한 한국 문화의 익숙함은 체류를 선택하는 요인이 되었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선진 기술을 습득하고 유학 기간 쌓은 지식을 응용 및 점검함으로써 더 많은 커리어를 쌓을 수 있다는 점, 상대적으로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이 작용했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한국에서의 다양한 참고 자료 열람, 연구에 필요한 각종 지원 등은 본국에서의 연구 환경보다 전문적인 연구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점은 미국과 같은 주요 정착지에서 유학생이 머물고자 하는 요인과 비슷하게 작용했다.

제 3국으로의 이동 계획 역시 개인적,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

다. 개인적 요인으로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거나 개인의 직업적 목표 성취를 이루고자 제 3국으로의 이동을 계획했으며, 선호하는 국가는 주로 의사소통 가능한 영어권 국가였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한국 체류 계획과 비슷한 전문적인 연구 환경 및 높은 임금 등이었다.

둘째, 대학 강사 및 연구자를 희망하는 국내 베트남 이공계 유학생의 취업 준비는 학업·연구에 집중, 실무 경험, 교수 및 동료 관계를 통한 정보 수집 등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직 및 강사직에 종사하기 위해서 학업에 집중하여 가능한 많은 지식을 쌓는 것을 가장 중요한 진로 활동으로 간주하였다. 학업·연구에 집중하는 것은 상위 과정 진학과 외국 학위 수여, 연구 실적 쌓기 등의 활동으로 나타났다.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학생들 간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석사과정 학생들은 모두 박사과정에 진학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박사과정 학생은 박사 후 과정을 계획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외국 학위를 수여함으로써 본국의 학위보다 인정받고자 했다. 한국 학위는 본국 혹은 제 3국으로 이동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가치로 여겨졌으며, 외국 학위를 더 인정해주는 사회적 분위기도 한국 학위를 더 가치 있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 실적을 쌓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연구 활동에 집중하고 있었다. 연구직에 종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우수한 연구 실적은 이들이 취업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성적과도 같았다. 연구 실적은 곧 이들의 이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실무 경험 역시 연구 참여자들에게 더 많은 커리어를 가질 수 있는 기회로 작용했다. 베트남 이공계 유학생은 졸업 후 한국 회사에 취업하거나 인턴십 등을 활용해 한국 회사에서 전공 기술이 어떻게 응용되는지와 한국 회사의 직장 문화 및 분위기는 어떠한지를 알고 싶어 했다. 그리고 난 후에는

본국에 돌아가서 이들이 배운 시스템을 적용하고자 했다. 그 중에서도 이들은 실무 경험을 중요시했는데, 이러한 원인으로서는 베트남의 학업 환경과 관련되어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주로 이론 중심인 베트남의 학업 분위기 탓에 실무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루지 못하는 것을 베트남에서 공부하는 약점이라 여기고 있었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의 회사에 취업함으로써 실무 경험을 쌓고자 했다. 취업 준비 과정에 관한 국내 이공계 학생들의 연구에서 성별 차이가 주된 원인임을 고려할 때, 한국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거나 일하는 경험 중에서 성별에 따른 제약 등은 크게 찾아 볼 수 없었다.

또한 취업 준비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 수집 방법은 주로 교수·동료들과 연락하는 것이었다. 국내 많은 청년들이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것에 비해 대학원생인 연구 참여자들은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선배나 동료들과의 관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했다. 이미 본국의 대학교에 소속이 되어 있는 연구 참여자의 경우 학교의 세미나, 연구 일정, 소식과 접하면서 학교와의 관계를 유지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전공이나 자신이 원하는 직종에서 이미 직업을 가진 종사자들과 연락을 꾸준히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및 제 3국의 취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주로 지도교수와 선배 등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고자 했다.

셋째, 국내 베트남 이공계 유학생은 진로 활동에서 언어적 제약, 정보 제한, 한국 체류의지 부족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공계 유학생은 전공 특성상 전문기술용어들이 영어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따라서 취업을 위한 지역 선택에 있어 보다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할 것이라 가정하였지만, 한국에서 취업하고자 한다면 한국어를 다시 배워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학교에서는 영어를 주로 사용해도

큰 어려움이 없지만 회사에서는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로 소통해야 업무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 제한은 또 하나의 어려움이였다. 인턴십과 같은 기회들이 있기는 했지만 일부 전공의 장학금을 통한 기회였고,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인턴십이나 관련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거의 접하지 못하고 있었다. 졸업 후 한국에서 체류 중인 연구 참여자 9와 10이 일자리를 구하게 된 이유도 지도교수의 도움이 절대적이였다. 또한 외국인을 채용하지 않는 문화도 이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이다. 최근 들어 국내 다수의 기업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인턴십으로 채용하지만 대부분 해외 영업직을 채용하며 요구되는 주요 능력이 한국어임을 고려할 때, 국내 베트남 이공계 유학생에게는 다소 어려운 지원 조건이다(조용철, 2013).

또한 본국에서의 진로 계획은 뚜렷하게 설정되어 있고, 그에 따른 준비 행동들도 명확했으나 한국 취업에 대한 계획은 개인마다 달랐으며 그에 따른 준비 행동은 대체로 낮은 점도 이들의 국내 취업을 어렵게 하는 점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본국에서의 진로 계획이 더 뚜렷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 혹은 제 3국에서 커리어를 쌓기를 원하지만 그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해 이에 따른 진로 준비 행동이 낮아 계획과 현실 사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미국과 같은 주요 유학지에 이공계 유학생이 정착하려는 것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두뇌 유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으며 유학 국가의 위계 속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국내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통해 이들을 인적 자원으로 여기고 활용하고자 한다면,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 그 동안의 유학생 유치 정책은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것에만 주로 초점을 맞춰왔다. 그로 인해 유학생의 수가 늘어난 만큼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사례인 이공계 유학생의 진로 활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이들이 주로 연구 기관, 전공 관련 기업으로의 취업을 선호하는 것을 살펴볼 때, 이들의 취업 활동을 도울 수 있는 관련 기관 설립, 정보 제공 등과 같은 지원책이 필요하다. 앞서 연구 참여자 1과 2가 장학금 수혜를 통해 인턴십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이들이 실무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유학 시절에 겪는 긍정적인 취업 경험이 졸업 후 국내 체류 의사를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기회 부족으로 실무 경험을 쌓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어를 익힐 수 있는 체계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교내에서는 영어 수업과 영어 의사소통으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막상 한국에 체류하면서 직장에 다니게 된다면 한국어 사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유학생은 일정 수준으로 한국어 수업을 수강하거나 시험을 통과하면 졸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을 인적 자원이라 여길 때 한국 사회의 노동 인구의 한 부분으로 유입 될 것을 대비하여 한국어를 적극적으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들이 한국에서 학업을 연장하거나 체류하고자 할 때, 교수·동료 간의 관계 및 학업 분위기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연구실 내 다문화적 인식, 전문적인 학업 환경 등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 이공계 학생의 경우 연구실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유학생들에게 교수자 및 연구실 동료들을 주로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연구실의 분위기 및 주변 관계가 중요하다. 특히 교수자의 다문화 감수성은 외국인 유학생을 지도하는데 요구되는 중요한 역량이다(김영순 외, 2013: 467).

본 연구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진로 계획을 다루었다는 점과 이공계 유



학생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 동안 기존의 유학생에 관한 연구가 초기 적응, 문화 적응 등을 다루었던 것에 반해, 본 연구는 유학생의 진로라는 주제로 유학생에 관한 연구를 인적 자원 활용 측면에서 재조명하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가 중국인 유학생을 주로 대상으로 진행되었음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지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더불어 이공계 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기존의 연구 대상 범위를 새롭게 하였기에 향후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포함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이 한국에서 학위과정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국내 취업에 대해 뚜렷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수 있다. 또한 대학원생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학부생과는 진로 계획이나 진로 활동 과정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로 학부생을 대상으로 다양화한 연구가 이루어지거나, 베트남 외의 다른 동남아시아 지역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 넓은 연구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동관·이규용·설동훈·임경택·오정은·김혜진(2010). 글로벌 인재유치를 위한 유학생 활용방안 연구. 고양: IOM 이민정책연구원.
- 강승희(2010). 공학 전공 대학생의 전공학과 만족도와 진로결정 효능감 및 진로태도 성숙간의 관계. 수산해양교육연구, 22(2), 151-164.
- 고미영(2012). 초보자를 위한 질적 연구 방법. 서울: 청목출판사.
- 교육부(2005). 대학알리미 2005년도 외국인 유학생 통계.
- 교육부(2006). 대학알리미 2006년도 외국인 유학생 통계.
- 교육부(2007). 대학알리미 2007년도 외국인 유학생 통계.
- 교육부(2008). 대학알리미 2008년도 외국인 유학생 통계.
- 교육부(2009). 대학알리미 2009년도 외국인 유학생 통계.
- 교육부(2010). 대학알리미 2010년도 외국인 유학생 통계.
- 교육부(2011). 대학알리미 2011년도 외국인 유학생 통계.
- 교육부(2012). 대학알리미 2012년도 외국인 유학생 통계.
- 교육부(2013). 대학알리미 2013년도 외국인 유학생 통계.
- 교육부(2014). 대학알리미 2014년도 외국인 유학생 통계(4월).
- 김봉환·김계현(1997). 대학생의 진로 결정 수준과 진로 준비 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9(1), 311-333.
- 김선태(2005).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의 재검토 -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Study Korea 프로젝트」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5(03).
- 김정화·김미경·김진경·고은영(2012). 대학생의 진로 결정 수준과 진로 준비 행동에 따른 군집유형과 진로장애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교육, 9(2), 417-442.

- 김영순·김금희·전예은(2013). 외국인 대학원생을 지도하는 한국인 교수자의 다문화 감수성에 관한 연구. 인문과학연구, 37, 461-488.
- 나임순(2006).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와 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비영리연구, 5(2), 159-197.
- 박소진(2013). 연구논문: 한국 대학과 중국인 유학생의 동상이몽; 서울과 지방 소재 사립대학 비교. 한국 문화인류학, 46(1), 191-234.
- 박은경(2010). 외국인 유학생의 국제 이주와 지역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대구·경북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1(2), 113-139
- 복락(2009). 제한 중국유학생 졸업자의 직업선택 요인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경산.
- 산다툰(2012). 제한 동남아시아 유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경산.
- 안영진(2009). 외국인 유학생의 이주과정과 배경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2(4), 344-363.
- 엄미정·이윤지·박동오·김도훈(2012). 이공계 분야 외국인 석·박사 유학생 현황과 유치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2012(25).
- 연규진·양지웅·이정선·장애경·김정기(2013).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별에 따른 진로 장벽의 차이: 이공계 대학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18(2), 295-316.
- 이민경(2012). 지방대학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 동기: A대학 아시아 유학생의 한국 유학 선택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구 안암교육학연구), 18(2), 177-201.
- 이승구·이제경(2008). 한국 대학생의 취업 목표에 따른 취업 준비 행동 및 첫 직장 만족도 차이. 진로교육연구, 21(3), 1-25.

- 이수영·이영민(2009). 이공계 대학생의 진로 결정 수준 및 진로 준비 행동 분석. 공학교육연구, 12(3), 73-78.
- 이제경·김동일(2004). 한국대학생의 취업 준비 행동과 발달적 특성. 청소년상담연구, 12(2), 107-123.
- 전재은·장나영(2012). 니하오? 국내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학생과의 교우관계: 중국인 유학생의 경험과 인식. 한국교육학연구, 18(1), 303-326.
- 정은이(2009). 중국인 유학생과 한국 대학생과의 진로관련 적응에 관한 비교연구 -진로 준비 행동과 진로정체감, 진로태도성숙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2(4), 109-131.
- 조명실·최경숙(2007). 후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모형 검증. 한국상담학회, 8(3), 1085-1099.
- 조용철(2013). 국내기업 64.3%, “외국인 유학생 채용하고 싶다”, 파이낸셜 뉴스. (검색일: 2013.9.23.)
- 주휘정(2010).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대학 학습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교육문제연구, 36, 135-159.
- 진미석(2007). 고급인적 자원의 두뇌 유출 현상의 이해 - 과학기술분야 미국 박사의 국내외 취업 실태 비교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25(3), 271-293.
- 한용용·정원일·전용일(2011). 논문: 국제경제; 고급과학기술인력의 국가간 유출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미국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5(1), 267-288.
- 허재준·김세움·노용진·오계택·Randall, W. G. 서환주(2011). 유학생 시장의 특성과 정책과제.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허형원·손은령(2011). 제한 중국유학생의 진로 장벽,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 진로 준비 행동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24(1), 51-66.
- 홍성민·조가원·김형주·김민경·정미나(2012). 2012년 이공계 인력의 국내외 유출입수지와 실태. 서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Alarcon, R.(1999). Recruitment Processes Among Foreign-born Engineers and Scientists in Silicon Valle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2(9), 1381-1397.
- Alberts, H. C. & Hazen, H. D.(2005). “There are Always Two Voices”: International Students’ Intentions to Stay in the United States or Return to their Home Countries. *International Migration*, 43(3), 131-154.
- Creswell, J. W.(200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2nd Ed.)*. SAGE Publications. 조홍식, 정선욱, 김진숙 역, (2010). 질적 연구 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서울: 학지사.
- Geddie, K.(2013). The Transnational Ties that Bind: Relationship Considerations for Graduating International Science and Engineering Research Students. *Population, Space and Place*, 19(2), 196-208.
- Hazen, H. D. & Alberts, H. C.(2006). Visitors or Immigrants?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Population, Space and Place*, 12(3), 201-216.
- Hoare, L.(2012). Transnational Student Voices: Reflections on a Second Chance.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16(3), 271-286.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2004). *International Migration Law (Glossary On Migration)(2nd Ed.)*. IOM. IOM 이민정책연구원 역 (2011). 이주용어사전 제2판. 고양: IOM 이민정책연구원.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2010). *World Migration Report 2010*. Switzerl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 KOTRA(2012). 해외 주요국 글로벌 인재 동향보고(KOTRA자료 12-002). 서울: KOTRA
- Lu, Y., Zong, L. & Schissel, B.(2009). To Stay or Return: Migration Intentions of Students from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Saskatchewan, Canada.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 and Integration*, 10(3), 283-310.
- Mosneaga, A. & Winther, L.(2013). Emerging Talents? International Students Before and After Their Career Start in Denmark. *Population, Space and Place*, 19(2), 181-195.
- Pham L. & Saltmarsh D.(2013). International Students' Identities in a Globalized World: Narratives from Vietnam. *Journal of Research in International Education*, 12(2), 129-141.
- Saldana, J.(2009). *The Coding Manual for Qualitative Researchers*. 박종원, 오영림 역, (2012). 질적 연구자를 위한 부호화 지침서. 서울: 신정.
- Tanyildiz, Z. E.(2013). The Ethnic Composition of Science and Engineering Research Laboratories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Migration*.
- Tremblay, K.(2005). Academic Mobility and Immigration.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9(3), 196-228.
- Weiss, M. L. & Ford, M.(2011). Temporary Transnationals: Southeast Asian Students in Australia.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41(2), 229-248.

## Abstract

# Research on Career Activities of Vietnamese Graduate School Students of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in South Korea

Su Kyoung Kim

Dept. of Multicultur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Inha University

Supervisor Prof. Young Soon Kim

This study used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o describe career activities of Vietnamese students of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Especially, students of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were examined as they have relatively less linguistic limitations as they use English terminology.

For the research, 10 Vietnamese students at a Korean university were interviewed, regarding their plan after graduation, activities for those plans, and difficulties they experience in the process.

The analysis led to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students plan to work as a lecturer or researcher at a university in their home country; work for a company or Korean company related to their major; or start up a company related to their major. Most of the students preferred researcher as a profession.

In addition, their future direction was divided into: returning home, staying in Korea, and moving. These categories were divided into personal factors as family relation, relationship with other people, and language skill improvement; and environmental factors as employment in Vietnam, professional environment, and language barrier.

Second, career activities of Vietnamese students were focus on study and research, work experience related to the major; and information collection. They wanted to have better qualification by studying in Korea; achieve good research results or gain work experience by working for a Korean company.

Third, difficulties involved with career activities in Korea included language barrier, limited information, and lack of intention to stay. Especially, These students were thought to have less linguistic limitations as they use professional terminology in English.

In conclusion, the subjects thought of studying in Korea as part of the process to find a better job in Vietnam. Considering that many students of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from developing countries settle down in foreign countries like the US where they studied, Vietnamese students in Korea wanted to return to their home country and acted as a bridge.

Key words: international students, Vietnamese international students, science and engineering students, international student career, international students' career activities.



## 연구 설명서

### Explanation on the Research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전공 석사과정 김수경입니다. 저는 졸업논문으로 “한국 유학 베트남 이공계 대학원생의 진로 활동”에 관해 연구하고자 합니다. 국내 베트남 이공계 유학생이 취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며, 어떻게 진로를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자료 수집의 내용은 학술적 목적(연구논문 혹은 단행본 출판)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Hello. My name is Su Kyoung Kim, and I am studying for master's degree in multicultural education. I chose to research 'Career Activities of Vietnamese Graduate School Students of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in South Korea' as my thesis. I would like to conduct an interview to find out what Vietnamese students who are studying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in Korea think about their future career and how they are preparing for it. I would appreciate if you could take your time for me to collect data for this study. The data collected for this study will not be used for any other purposes than academic purposes(research paper or publication) and remain confidential.

- \* Researcher: Su Kyoung Kim
- \* Phone number:
- \* E-mail:
- \* Academic advisor: Young Soon Kim

## 연구 참여 동의서

### Consent Form

본인은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전공 김수경 학생이 수행하는 “한국 유학 베트남 이공계 대학원생의 진로 활동”의 심층 면접 인터뷰 대상자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연구수행자로부터 본인이 참여하는 심층면접 인터뷰는 학술 목적으로 사용됨(연구논문 혹은 단행본 등의 출판)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심층 면접 인터뷰 대상자의 사생활 존중, 익명성 및 면접 내용의 비밀 준수 등을 포함한 인터뷰 대상자로서의 권리가 보장된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연구 참여를 수락합니다.

I hereby agree to participating in the in-depth interview for the research titled “Career Activities of Vietnamese Graduate School Students of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in South Korea“ conducted by Su Kyoung Kim, a student of multicultural education at Inha University. I was explained that the in-depth interview, in which I agreed to take part, will be used for academic purposes and that rights as an interviewee, relating to privacy, anonymity, and confidentiality of the interviewees and interview contents will be protected.

- \* Name:
- \* Phone number:
- \* E-mail: (Official)  
(Frequently used)
- \* Address: (Korea)  
(Home Country)

Date 2013. . . . .

Signature \_\_\_\_\_

## 인터뷰 질문지

\* 먼저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A. 유학 동기

1. 한국에 오기 전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2. 어떻게 한국 유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까?
  3. 어떻게 인하대를 선택했습니까? 어떻게 지금의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까?
- \* 장학금이나 생활 비용에 관한 질문하기

### B. 유학 생활

1. 한국에 오기 전 기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학업/생활/기타에 대해]
2. 당신의 하루 일과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평일/주말/방학에 대해]
3. 연구실에서의 생활/일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즐거움에 대해]
4. 현재 본인의 학업은 어떻습니까?
5. 방학 때 하는 인턴십에 관한 경험을 말씀해주세요.
6. 한국에서의 유학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 C. 진로 준비 과정

1. 졸업 후 어떤 진로/취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2. 졸업 후 어디에서 취업하고 싶나요? 한국에서 취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한국/본국/제 3국에 대해]
3. 취업을 위해서 현재 혹은 미래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입니까?
4. 진로 준비 하는 데 있어, 어디서 혹은 누구에게 주로 도움을 받습니까?
5. 취업 준비를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대응 전략에 대해]
6. 한국에서의 학위가 본국 혹은 나중엔 취업하려고 하는 나라에서 제대로 인정받나요?
7. 진로 계획 및 취업 준비에 있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 지금까지 준비된 질문은 다 하였습니다. 혹시 한국에서의 생활, 학업 그리고 진로 준비에 대해 더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인터뷰 질문지

\* 먼저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A. 유학 동기

1. 한국에 오기 전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2. 어떻게 한국 유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까?
3. 어떻게 인하대를 선택했습니까? 어떻게 지금의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까?
4.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 과정이 있었습니까?
5. 어떻게 한국에서 일을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까?
6. 어떻게 지금의 회사(연구실)에 오게 되었습니까?

### B. 현재 생활

1. 한국에서 일을 하기 전 기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2.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그 일이 학교 다닐 때 전공과 관련이 있습니까? 도움이 많이 됩니까?
3. 당신의 하루 일과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평일/주말/방학에 대해]
4. 회사(연구실)에서의 생활/일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즐거움에 대해]

5. 현재 한국에서 일하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 C. 진로 준비 과정

1. 앞으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싶습니까?

2. 앞으로 한국에서 얼마 동안 더 일을 하실 예정입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 \* 한국에 머무를 경우와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경우[왜, 각각 묻기]

3.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회사/개인에 대해]

4. 한국에서 일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5. 향후 계획을 위해서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6.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향후 계획과 관련 하여 본국 혹은 나중에 취업하려고 하는 나라나 직종에 도움이 됩니까?

7. 앞으로의 일/직장 생활을 위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 지금까지 준비된 질문은 다 하였습니다. 더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부록 5> 인구학적 기초 질문

## 인구학적 기초 질문

|                                  |   |   |                    |
|----------------------------------|---|---|--------------------|
| <b>Name</b>                      | (Eng)<br>(Kor)<br>(Viet)  | <b>Gender</b>   | M / F              |
| <b>Age</b>                       | (     ) ( year:     month:     )  | <b>Marital status</b>   | Y / N (Year:     ) |
| <b>Current institution</b>       | (Univ.)<br>(Company)  | (Major)<br>(Department)   |                    |
| <b>Sibling</b>                   | Gender  | Name  | Age                |
|                                  | 1   | M / F   |                    |
|                                  | 2   | M / F   |                    |
|                                  | 3   | M / F   |                    |
|                                  | 4   | M / F   |                    |
| <b>Period of studying abroad</b> | 1. (     ). (     ). ~ (     ). (     ). / Nation:<br>2. (     ). (     ). ~ (     ). (     ). / Nation:<br>3. (     ). (     ). ~ (     ). (     ). / Nation:  |   |                    |
| <b>Religion</b>                  | <input type="checkbox"/> Protestant <input type="checkbox"/> Catholic <input type="checkbox"/> Buddhism <input type="checkbox"/> Confucianism<br><input type="checkbox"/> No religion <input type="checkbox"/> Etc. |   |                    |
| <b>Education</b>                 | <input type="checkbox"/> Elementary <input type="checkbox"/> Secondary <input type="checkbox"/> Higher <input type="checkbox"/> University(2/3/4)<br><input type="checkbox"/> Graduate school( Master / Doctor)     |   |                    |
| <b>Parents education</b>         | (Father)  | <input type="checkbox"/> Elementary <input type="checkbox"/> Secondary <input type="checkbox"/> Higher <input type="checkbox"/> University(2/3/4)<br><input type="checkbox"/> Graduate school( Master/Doctor) |                    |
|                                  | (Mother)  | <input type="checkbox"/> Elementary <input type="checkbox"/> Secondary <input type="checkbox"/> Higher <input type="checkbox"/> University(2/3/4)<br><input type="checkbox"/> Graduate school( Master/Doctor) |                    |
| <b>Parents occupation</b>        | (Father)<br>(Mother)  |   |                    |
| <b>Monthly income</b>            | Won/month   |   |                    |
| <b>Costs</b>                     | (Tuition)<br>(Living cost)  | Won/semester<br>Won/month   |                    |

How did you cover the necessary expenses when you study?